



표지 설명

앞 표지: 인도 하이데라바드 제2차부의 헤마 구티는 익숙한 솜씨로 **롱골리** 또는 모래 그림으로 알려진 인도의 민속 예술품을 끝마무리하고 있다. **뒷 표지:** 지어진 지 300년이 된 타지마할(왼쪽)은 인도의 문화적 보물 중 하나이다. 오늘날의 인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영적인 보물을 발견하고 있다. 청년들(아래쪽)이 **롱골리**를 만들기 위해 분필로 본을 쓰고 있다. 왼쪽부터: 카루나 네라푸다, 프라드하나 비라바트후라, 디파 네라푸다. 34쪽의 "인도: 파종의 시기"를 참조한다.
(표지 사진 촬영: 마이클 알 모리스)

어린이란 표지:

그림: 아놀드 프라이버그. **레이맨인 예언자 사무엘** 사무엘은 목숨을 걸고 사악한 제이리해물라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친 주님의 용감한 종이였다. 사무엘이 행한 일과 제이리해물라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알고자 하면 14쪽의 "물문경 이야기"를 참조한다.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우리의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10

플로렌스 추쿠라: 변화의 기적
비버라 제이 클라크와 쟈 윌 핀보르그 12

장애물과 신앙과 기적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18

인도: 파종의 시기 마이클 알 모리스 34

예언자의 약속을 증명함 제임즈 알 프린스 44

참인가 거짓인가 제프리 알 홀랜드 46

청소년란

질의 응답: 어떻게 하면 제 친구가 요셉 스미스의 시현을 받아들일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22

육신을 위하지 않는 것은 해럴드 지 할렘 26

성찬식에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음 대리 리스고우 30

정반대의 결과 스테파니 래드포드 32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님 25

어린이란 (별책 부록)

슬픈 생일 로버트 에이 밀러 2

노래: 너와 걷고 캐롤 린 피어슨과 리드 앤 니블리 4

친구가 친구에게: 존 비 덕슨 장로 6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정에서의 사랑 캐런 애쉬튼 8

이야기: 주운 사람이 임자 마리 헬렌 터너 10

심심풀이: 성구에 나온 색깔대로 칠하기 로벨 볼핑 13

물문경 이야기:
레이맨인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함 14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고든 비 헝클라, 토마스 에스 몬스, 재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화: 보드 케이 패커, 롭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말린 에이치 옥스, 앤 러셀 블랜드, 조셉 비 위스리, 리차드 지 스콧, 로버트 디 에일즈, 제프리 알 율렌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랜드

고문: 스펜서 제이 쿨드, 엘 라이오넬 캔드러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홀 니이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캘리

그래픽 책임자: 윌러 얼 로야브로그

편집스텝: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폴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마젤

편집인 보조/이러이런: 디앤 워커

편집/제작부장: 매리엔 마틴데일

제작보조: 제스 데일리

편집보조: 제니퍼 그리우드

디자인스텝:

잡지 그래픽 부장: 옴 엠 가오시끼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켈렌

디자인: 캐리 록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캐시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스 커비, 매트 맥스웰

구독 담당 스텝: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리크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마케팅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관: 제 363호, 제 33권, 제 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21-3166

발행일: 1996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윈

편집인: 찬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6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8/74 번역 승인 8/94 June 1996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6986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 및 영어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말린 판,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8,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앞/지부/변경된 주소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9.00 per year.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The SOU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형제들은 결코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 할 때 무릎을 다쳐서 삼 주 동안 쉬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봉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낙담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러한 생각들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 저의 선교부장님이었던 에피보브 부장님과 자매님이 제게 가장 최근에 발행된 리아호나(러시아어 판)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실라 킨드레드(1995년 6월호)가 쓴 "형제들"이라는 기사에서 저는 "형제들은 결코 짐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저는 평온함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 전해 주는 훌륭한 간증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본다렌코 알라 빅토르브나
우크라이나 키예프 선교부
보스크레센스키 지부

위안과 힘

저는 6년 전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계속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했으나 저는 제가 받아들인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위안과 힘의 원천이 되었던 한 가지가 바로 리아호나(영어판)였습니다. 리아호나를 읽을 때마다 저의 영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저의 간증도 커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 잡지에 대해 아주 감사드립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매리 제인 키야노
필리핀 바코로드 스테이크
파글라움 빌리지 워드

어떻게 읽을 시간을 찾았는가?

얼마 전에 저와 남편은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를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도록 저는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에 다니는데다가 집에 돌아오면 해야 할 집안 일이 많았으므로 읽을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리아호나를 읽을 시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버스 정류장과 버스 안에서 읽고 또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도 읽었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영을 더욱 가깝게 느낍니다. 이 놀라운 나침반은 제 생활을 참으로 유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레날세 에이 시 엘 데 모라에스
브라질 쿠리티바 노보 문도 스테이크
아라우카리아 워드

헝가리에서 감사함을 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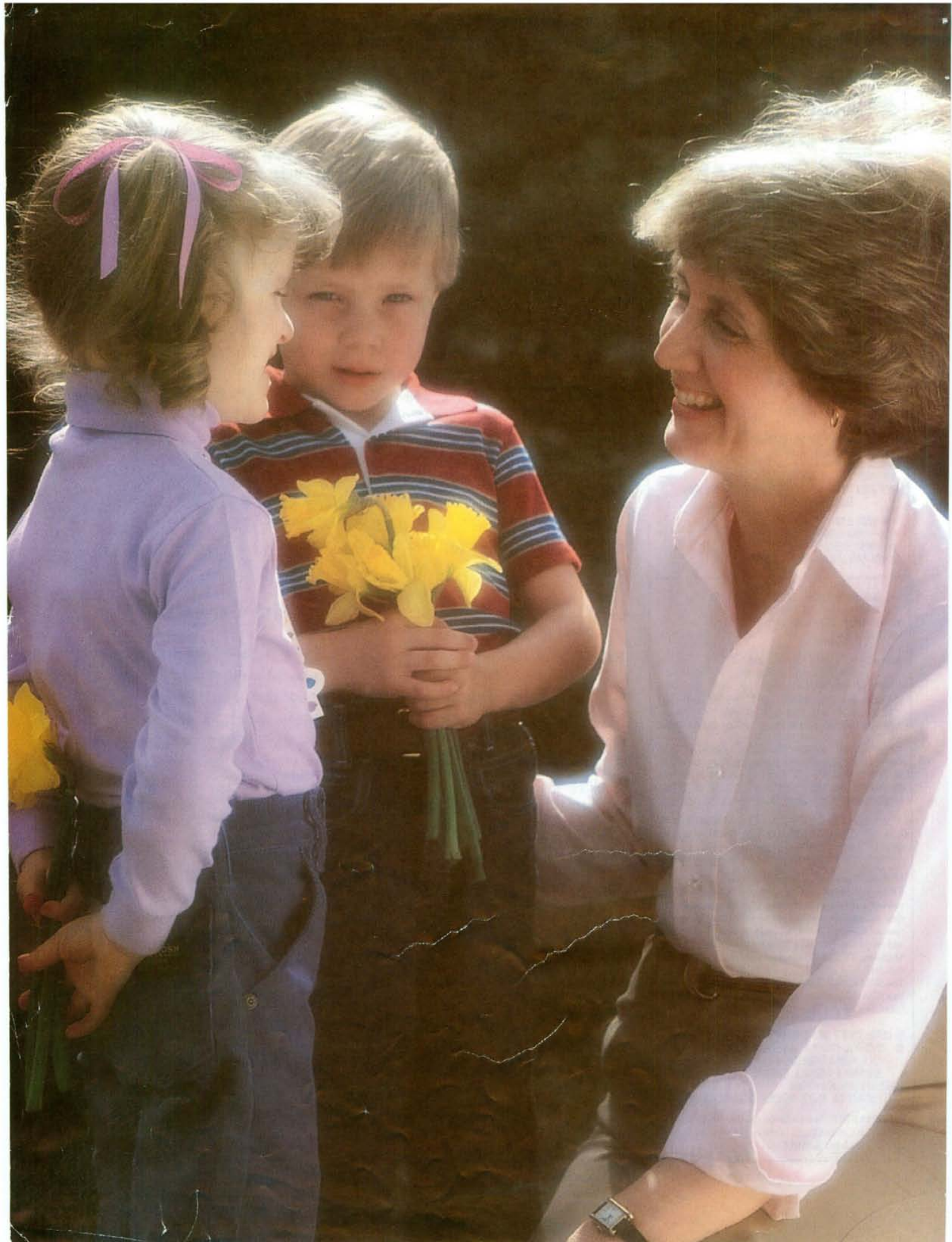
저는 헝가리어로 발행되는 잡지 리아호나와 어린이판인 치라고코스크카(작은 별)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들과 세계 다른 지역의 말일성도들에 관한 기사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버터 가족
헝가리 부다페스트

회원들과 하나가 됨

저는 리아호나의 러시아어 판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 잡지는 저를 온 세상의 교회 회원들과 연결시켜 주며 신앙에서 하나가 되고 영적인 지지를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베라 테레코흐바
러시아 성페테르부르크 선교부
바실리오스트로보스키 아일랜드 지부



우리의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네 가지 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저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통신, 교통, 의학 분야에서, 또 가정 및 직장에서의 편리성 면에서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 모두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과학자들에게 거의 경외감에 가까운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75세 정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평균 수명이 25년이나 연장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30세였을 때 페니실린이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놀랄만한 약품들이 다양하게 계속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저는 다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면에서 큰 기적을 이뤄 왔지만 도덕과 윤리 면에서는 비극적인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라던 유년 시절의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의 가정에는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세심히 보살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밤에도 다시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선을 가르치십시오.
현대의 계시를 통해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도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바로 그 행동은 존경심과 경건함과 감사함을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병자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기억했습니다. 또 그러한 기도를 통해 정부의 지도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공직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 주었습니다. 오늘날 어디에 그런 존경심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정에서는 거칠고 불경스러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절에는 공손함과 친절함도 가르쳤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제 이웃에 살았던 애브너 호웰이 몇 년 전에 녹음한 내용을 제게 보내 왔습니다. 소수 민족이었던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유타 주의 군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그 녹음을 통해 어린 학생 시절에 저의 어머니가 그의 일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놀리지 못하게 해주었던 일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피부색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과 감정은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또 우리들이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학교에 가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긴 바지를 입었던 것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짧은 바지에 길고 검은 면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깔끔하고 말쑥했습니다. 양말을 깎는 것은 무척 귀찮은 일이면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립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미국의 정치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중학교 이름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디어더 러즈벨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2월 12일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탄생을 기념하는 공휴일이었습니다. 또 2월 22일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공휴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휴일 바로 전에는 "정직한 에이브"에 대해 배웠고, 아버지의 벚나무를 베어 쓰러뜨린 것을 고백한 조지 소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주디 로버트 : 영웅 전기

함께 일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일하고 그 일을 통해 청결함과 발전과 성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활에 만큼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정직의 원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웠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기리는 공휴일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날은 단지 노는 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소녀들을 존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소녀들과 함께 놀았으며 우리 집에서 소년 소녀들과 함께 파티를 가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데이트를 할 때조차도 아주 건전했으며 교제하는 소녀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회는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가치 저장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더욱 멋진 차들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량 강도와 운전자 총격 사고를 걱정합니다. 우리에게 텔레비전과 유선 방송과 그에 관련된 모든 설비가 있지만 그것들은 불경스럽고 음란한 언어와 천박한 내용을 가진 여흥을 우리의 거실에 퍼부어 댁니다. 밤에는 감히 걸어 다닐 생각조차 못하는 도시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범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 한

나라만을 예로 들더라도 일 년에 6백만 건의 심각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1960년에서 1992년 사이에 범죄가 321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불과 32년 동안에 말입니다. 1992년 한 해에 23,760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베트남 전쟁 전체 기간에 사망한 미군인 수의 거의 반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 살인도 사회의 비극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사망의 원인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살인입니다. 더 많은 경찰관을 고용하고 더 많은 감옥을 짓기 위해 더 많은 돈이 계속 쓰입니다.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문제의 원인이 해소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러한 염려는 미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생애 동안에 그 이전의 모든 시대에서보다 더 많은 과학적인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참된 문명화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다른 부분에서는 정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사회에 범죄가 늘 존재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늘 어떤 종류의 범죄든 존재할 것임을 압니다. 외설물과 부도덕과 다른 문제들도 존재해 왔고, 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추세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커다란 재앙을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는 항상 사생아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이런 추악한 사회 현상이 늘어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상황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미국의 예산 부족보다 오히려 우리 나라의 도덕성 파괴가 더욱 염려됩니다. 경찰관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감옥이 필요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 무엇보다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은 굳건

한 가정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배운 대로 자랍니다. 사회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갖고 있지만 저는 부모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또한 지금도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 자원의 막대한 부분을 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대 생활이 더욱 편리하여져서 기쁘기 그지없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만도 매해 800,000건 이상의 가정 폭력이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가정의 안정성에 관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한 가정은 필연적으로 불안한 자녀 세대를 낳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나 한 달이나 일 년만에 바로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한 세대 안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고 두 세대 안에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로 볼 때 그 정도의 기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가능한 곳마다 친절한 정신을 가정에 불어 넣어 가정에 선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기 중에는 도시에서 살다가 여름이 되면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그 농장에는 사과와 복숭아와 여러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저와 형은 십대 때까지 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2월과 3월, 아직 땅에 눈이 덮여 있는데도 토요일이면 우리는 농장으로 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농과 대학에서 실시하는 실습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가르치던 가지 치기에 대해 무언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2월에 복숭아 가지를 쳐 주면 9월에는 대부분의 나무에서 원하는 과일을 딸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그 개념은 자라나는 열매가 나무 가지에 자리를 잡을 때, 한 곳에 몰리지 않고 공기와 햇빛을 충분히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굵은 묘목은 굵은 나무로 자란다.”는 옛 속담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연차 대회에서 말한 적이 있는 이야기를 다시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신혼 가정을 꾸릴 때였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집안의 조경 책임은 제가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중에서 첫번째로 심은 것이 바로 주엽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 집안을 시원하게 하는 데 일조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안고, 저는 그 나무를 계곡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가장 세게 몰아치는 구석에 심었습니다. 저는 땅을 파서 나무 뿌리를 넣고, 그 주위를 흙으로 돋우어 주었으며, 그리고 물을 주고는 이후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지도 없이 줄기만 뻗어 오른 나무로, 직경이 겨우 2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아서 쉽게 아무 방향으로나 구부러질 수 있는 휘기 쉬운 나무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그 나무에 관한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린 어느 겨울날, 저는 우연히 창문을 통해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나무가 기형적으로 자라나고 또 균형도 맞지 않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나무를 똑바로 세워 보려고 나무를 향해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무 줄기가 직경이 거의 30센티미터나 될 정도로 자라버렸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연장 창고에서 도르래 장치를 가져와 한 쪽을 나무에다 고정시키고 다른 한 쪽을 단단히 박힌 기둥에 매달아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도르래가 조금 움직이더니 나무 줄기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뿐이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저에게 "이제 당신은 저를 똑바로 할 수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내게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나는 똑바로 되지 못할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저는 톱을 가져다가 서쪽으로 뻗었던 가장 무거운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제가 행한 일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 나무의 가장 큰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20센티미터 정도의 커다란 흉터가 남았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단 하나의 작은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심은 지 반 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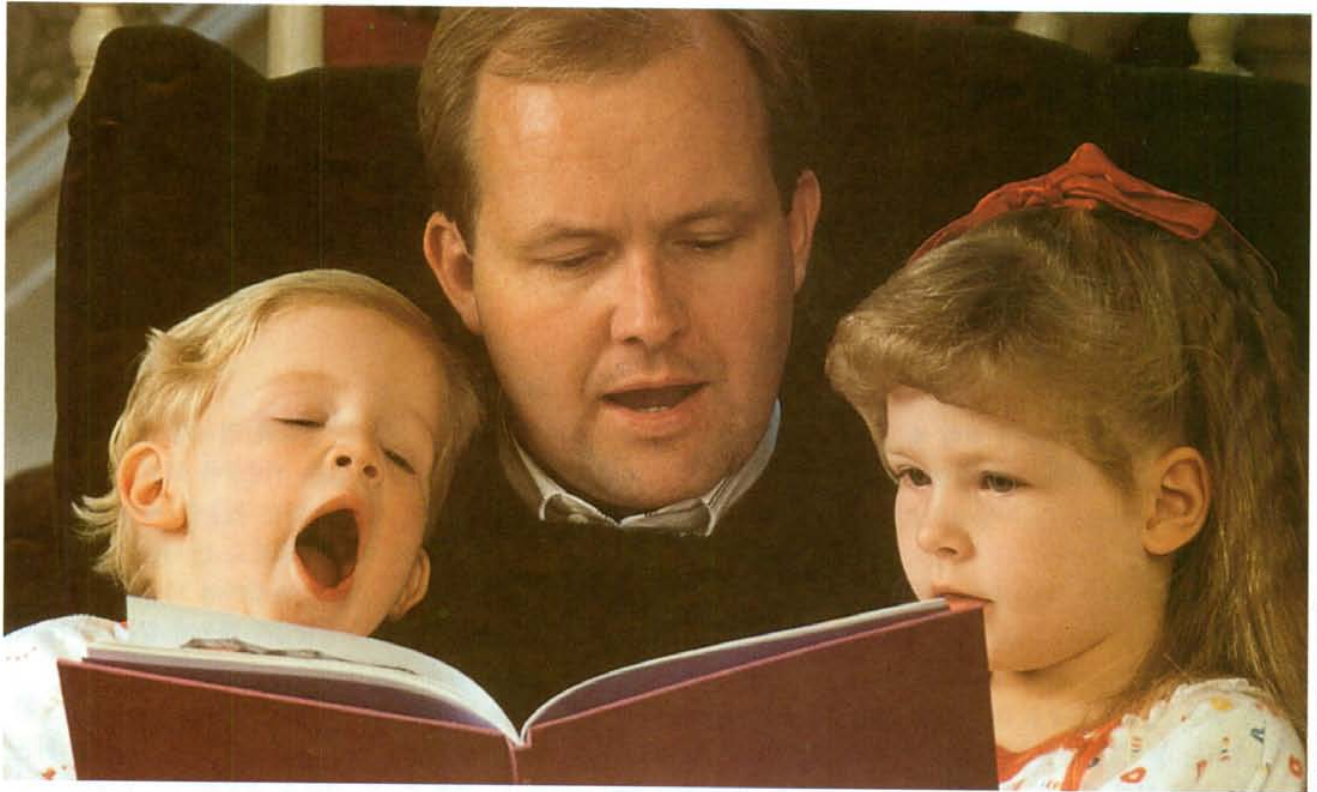
집에는 제 딸아이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나무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보기 좋은 나무로 크게 자라 집을 훌륭하게 꾸며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성장하면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으며 그 나무를 곧게 하기 위해 제가 행한 일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제가 그 나무를 심었을 때, 끈 하나만 매달아 놓았어도 바람을 이겨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줄을 매달아 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바람이 불어 가는 방향으로 비뚤어진 채 자랐던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나무와 같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 늘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그들의 삶이 똑바로 서도록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22:6)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침의 근원은 가정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의 아내 바바라 부시는 1990년에 매사추세츠 주의 윌레슬리에 있는 윌레슬리 대학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성공은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놀랄만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종교는 가치관의 훌륭한 보호자이며 표준에 대한 교사입니다. 가치관에 대한 종교적 메시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합니다. 시대 산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음성은 옳음과 그름을 분명히 구분 짓는 엄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93:40)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지? 하고 여러분은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네 가지 간단한 일을 준행한다면 한두 세대 안에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관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로서 부모와 자녀들이 (1)함께 선을 가르치고 배우며, (2)함께 일하고, (3)함께 양서를 읽고, (4)함



프러미다 디자인: 영웅 김지

함께 양서를 읽으십시오. 저는 어린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책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배우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1. 자녀들에게 선을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유고슬라비아 국민이 서로 죽이면서 증오에 찬 그룹으로 나뉘질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비로운 감정은 전혀 없는 듯했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아무런 배려도 없이 포화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의 가정에서 그들과는 민족적인 기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곳에서 것처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전 세대가 후손들의 마음에 심어준 증오의 씨앗이 쓴 열매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든 종족 사이의 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가 될 수 있으며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십시오. 여성과 남성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모든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친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심을 갖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아내가 남편에게서 미덕을 찾아 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종종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행해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부한 이야기로 들립니까? 물론 진부하겠지요. 이 말은 그 안에 담긴 진리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단지 악마의 궤변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의 신성함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은사의 거룩함을 가르치십시오. 또 행복과 평화와 덕을 얻고 싶으면 우리 내부에서 타오르는 충동을 억제하고 자제해야 하며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모든 청년들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딸이며 그녀에게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짓는 일이기도 하다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청년들에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한 계속될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모범과 교훈으로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러한 교훈에는 도둑질은 악한 것이다. 시험지를 엿보는 것은 잘못이다. 거짓 말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치욕스럽게 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명 속에 예의를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면 그 순서는 자녀가 아주 어릴 때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함께 일하십시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이 “게으른 마음은 악마를 숭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일하고 설거지하고 마루를 닦고 잔디를 깎고 가지와 덩굴을 지우고, 페인트를 칠하고 수리하고 청소하는 등 수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통해 일의 댓가로 청결함과 발전과 성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흠쳐도 좋다고 생각하며 자랍니다.

낙서를 한 사람이 낙서를 지워야 한다면 낙서 행위는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어떤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다른 소년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던 저는 바나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운동장에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는 제게 바나나 껍질을 주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이 명령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아주 단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앉아 있던 벤치에서 일어나 바나나 껍질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쓰레기통 주위에도 쓰레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게 제가 버린 쓰레기와 함께 다른 쓰레기도 주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운동장에 바나나 껍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 함께 양서를 읽으십시오. 저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 중 텔레비전이 가장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우리 가정으로 보내지는 추하고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불경스러운 것들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슬픈 기록들입니다. 많은 가정이 텔레비전을 매일마다 여섯 시간이나 일곱 시간 동안 시청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저는 텔레비전 보는 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중독성을 띄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나쁜

습관들과 마찬가지로 해로운 습관이 됩니다. 또 저는 어린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책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배우지 않거나 훌륭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세련되고 잘 다듬어진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위대한 사상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무적인 경험인지 배우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킹 제임스 판 성경의 훌륭한 글귀들을 배우며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전을 공부한다면 위대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님과 직접 가까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힘차고 감동적인 글귀로 번역된 고대 예언자들의 장엄한 언어들도 읽고 음미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양서를 펼치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세대를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텔레비전을 통해 참으로 귀중한 많은 것들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귀머거리 노예처럼 많은 작가와 연출자의 쓰레기를 주입 받지 말고 분명하게 선별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제게 한 권의 책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교의 철학 박사로서 그 책을 읽은 것이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여덟 살 때 우연히 사고로 장님이 된 파리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둠이 그를 둘러쌀 때, 그의 인생에 어떻게 새로운 빛이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열여섯 살인가 열일곱 살 때 독일이 프랑스를 정복하였고 독일군은 파리로 행진해 들어왔습니다. 총명한 학생이었던 이 장님 소년은 레지스탕스(제2차 대전 중 독일군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독일과 맞서 싸웠던 시인 작가들의 정치적, 문학적 지하 운동-역자 주)를 조직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복사기를 이용해 작은 신문을 찍어 돌렸습니다. 그들은 250,000부 이상을 발행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한 동료의 밀고로 체포되어 부켄발트(Buchenwald)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부모들은 어린 자녀와 함께 무릎꿇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보내졌습니다. 그 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희생자들과 함께 불결함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내부에는 자기를 둘러싼 비극을 극복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더러운 수용소에서 포로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시작했던 그 작은 신문은 위대한 신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그 훌륭한 젊은이의 이야기로 인해 고무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자녀들을 위한 훌륭한 영웅을 찾아줄 수 없다면 그들이 양서에서 그런 영웅들을 찾으도록 도와주십시오.

4.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부모들로 하여금 어린 자녀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하고 간단한 습관을 행하지 않는 가족은 커다란 손실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에 관련된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선을 가르치며 배우고 함께 일하며 함께 양서를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생활을 바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특별히 그들이 어릴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십대들은 너무 늦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저의 주업 나무를 기억하십시오. 수술과 고통은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 냈으며, 후에 그 나무는 더운 날에 반가운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거룩한 사도직에 성임되고 대관장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이 신성한 직분은 영광을 받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하고 격려하고 강화하고 선한 것들과 신성한 것들을 확신시키는 책임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그 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의 노력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 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또 국가를 위해 그렇게 함으로써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

이 말씀은 1994년 3월 5일에 브리감 영 대학교의 경영학과 동창회 워싱턴 디 시 분회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1.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기적을 이루어 왔지만 도덕과 윤리 면에서는 비극적인 재난을 겪고 있다.
2.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3. 부모들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간단한 일을 준행한다면 한 두 세대 안에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관은 변화될 것이다.
 - 자녀에게 선을 가르친다.
 - 함께 일한다.
 - 함께 양서를 읽는다.
 - 함께 기도한다.
4. 많은 것들이 우리 생활을 바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어린이와 함께, 특별히 그들이 어릴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 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 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자이다.

전 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영원의 영혼을 시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 (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 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 계획에 의하며 그의 자녀들은 복인을 믿고 신앙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 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 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 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단거를 할 때 가장 불행하게 생취될 수 있다. 생양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진정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 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 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상호조화 대회에서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이 말씀의 일부로 낭독한 것이다.

플로렌스 추쿠라

변화의 기적

바바라 제이 클라크와 쟈 유 핀보르그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사는 플로렌스 추쿠라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게 빛난다. 당연히 그럴 만하다. 신앙, 가족, 교육과 같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추쿠라 자매는 최고로 축복 받은 여성이다. 그녀는 충실한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유능하고 노련한 간호사이다. 또한 그녀는 남편인 크리스토퍼가 가나 아크라 선교부를 관리하는 동안 그와 함께 훌륭하게 일해 왔다. 그녀는 그 곳에서 선교사들에게 물을 끓여 걸러서 마시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선교사들 사이에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플로렌스 추쿠라에게도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성공적이고 뛰어난 여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편의 기적과 같은 드라마이다.

초라한 벌레인 유충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생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은 언제나 기적같이 보인다. 그러나 인생의 변화는 더 한층 놀랍다. 그리고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이 다음과 같이 가르친 것처럼 이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을 크게 하시고, 그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 밝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며, 그들의 영성을 높이시고, 그들의 축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기회를 늘려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친구를 얻게 하시며,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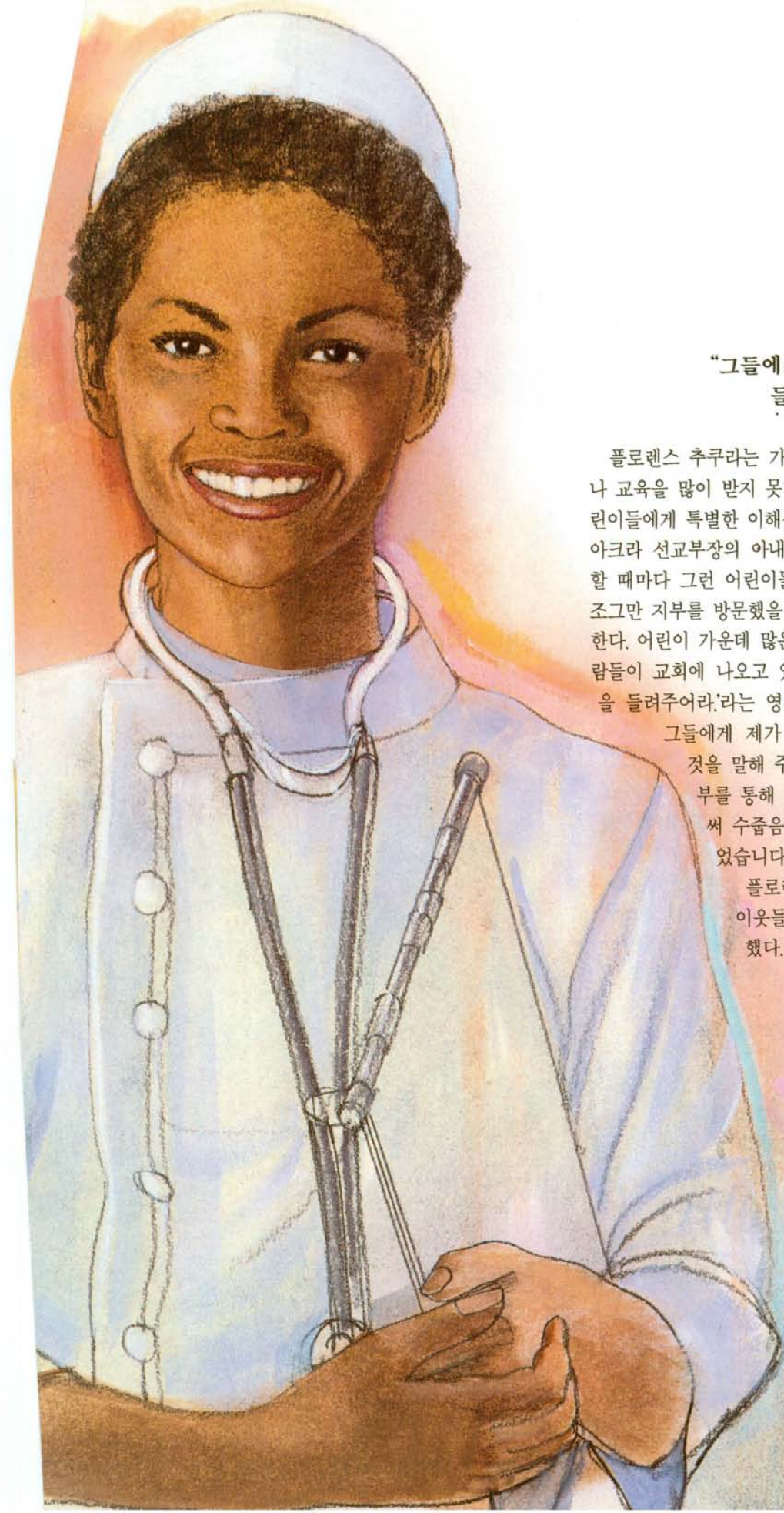
유충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것이 단계적인 것처럼 인생에서의 변화도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평생에 걸쳐 겪는 시련들도 확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

플로렌스 추쿠라의 인생에서 변화의 기적은 분명한 것이었다. 그녀는 나이지리아 오닛샤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선원이었던 아버지는 집에 오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플로렌스의 어머니는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플로렌스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기 가족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열한 살쯤 되었을 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으며 게다가 굳건한 여러 가지 약속을 함으로써 이 결심을 어린이가 지니는 소망 이상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러한 것들이 더 나은 생활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처음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어요.”라고 회상한다. 이 기본적인 결심 외에도 그녀는 다음과 같이 실제적인 세 가지 결심을 했다. “저는 부모님과 손위 사람들에게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또 학업에 정진하겠다





“그들에게 너의 인생담을
들려주어라.”
.....

플로렌스 추쿠라는 가난한 환경의 어린이, 특히 가난하거나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이해심을 갖고 있다. 추쿠라 자매는 가나 아크라 선교부장의 아내로서 선교부 산하의 지부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 조그만 지부를 방문했을 때였어요.”라고 추쿠라 자매는 회상한다. 어린이 가운데 많은 수가 글을 읽지 못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 너의 인생담을 들려주어라.’라는 영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제가 그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공부를 통해 또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순종함으로써 수줍음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어린 소녀 시절에 교육 받은 이웃들을 보면서 학교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다. 소녀 시절의 친구 부모님들



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플로렌스의 생활에서 오랫동안 끊임없는 계속된 현실이었다. 그녀는 가족들을 위해 공공 수도나 시내에서 물을 길어 날랐다. 또 시골에서 빨감을 주워 왔으며, 음식을 만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쪼개기도 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서 가족들의 중요한 식품이었던 카사바 뿌리를 장만하는 힘겨운 일도 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먹이고 그들이 학교 숙제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토요일에는 공공 수도에 가서 빨래를 했으며, 휴일조차도 야채 장사를 해서 수입료를 마련하는 것을 도왔다.

플로렌스는 열한 살 때 했던 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플로렌스 추쿠라가 가난한 어린이에서 성공적이고 뛰어난 여성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잠한 지역이 계속될 동안 우리는 웃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이미 쓰리 오디얼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급류를 지나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빠는 이것을 통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회오리 물살, 즉 강한 물살을 지닌 커다란 세탁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그것이 커다란 댐의 배수로 위에서 배를 타는 것과 같아서 밑바닥의 엄청난 물살에 휩싸이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른들은 물살이 잠잠한 곳을 지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보트는 약간 옆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빠가 고개를 드셨을 때 그때서야 보트가 쓰리 오디얼 쪽으로 곧장 나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보트가 곧바로 그 곳을 통과하여 나아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물살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속도를 얻기 위해서 있는 힘껏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거센 물살이 우리를 덮쳤을 때 나는 고개를 꼭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제리 삼촌이 보트 밖으로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줄을 꼭 잡고서 사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나 외에는 보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모든 어른들을 소용돌이치는 강으로 떠밀어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중에야 그 충돌의 힘으로 인해 고무 보트가 후미와 선미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접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강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을 동안 물살은 내가 탄 보트를 강 중심으로 밀고 갔습니다. 보트는 물살에 떠밀려 마치 시소를 탄 것처럼 마구 소용돌이치면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겁에 질려 로프를 꼭 붙들고 다리를 노 젓는 좌석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엄마와 아빠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디 계실까? 다른 사람들 처

럼 나도 강으로 뛰어 들어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때 나는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 속삭이는 어떤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갑자기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도움과 보호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보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곧 그 소용돌이치던 물살은 조금씩 잔잔해졌고 강 하류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신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 받는다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 주위로 물살이 치지 않게 되자, 그제야 나는 삼촌과 숙모가 독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다시 나는 강으로 뛰어 들어가서 강가까지 수영을 해서 가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는 보트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보트가 저절로 독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나뭇가지 몇 개를 움켜잡았으며, 한 친구가 와서 보트를 덤불에 묶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어른들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나는 그 경험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기슭에 당도하자마자 그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이나 나는 성신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두 번 모두 나는 그 속삭임에 순종하였고 강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보트가 저절로 독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실 수 있습니다. □



켈리 에인필트, 11세 (부모님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림 : 브래드 티어

매년 6월 부모님은 와이오밍 잭슨 홀 근처의 스네이크 강으로 급류 타기를 하러 가셨습니다. 1991년 아빠는 처음으로 내가 급류 타기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수영복을 입고, 다음에 잠수용 고무 옷을 입는 동안 무척이나 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명복 조끼를 입은 후에 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우리와 같이 간 다른 어른들과 함께 고무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강은 진흙투성이였고 봄이 되어 눈이 녹아 내렸기 때문에 물살이 무척 빨랐습니다. 물의 색깔은 코코아 빛이었습니다. 나는 보트 맨 앞에 앉아 발을 노 젓는 좌석 아래로 쭈셔 넣고 줄을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급류를 통과할 때엔 크게 소리 내어 웃거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커다란 물살이 나를 덮을 때면 고개를 꼭 숙였습니다. 보트의 중심을 잡기 위해 어른들은 급류 사이로 노를 저었습니다. 물살이 잡



경전을 공부하는 샘

여기를 접는다

오려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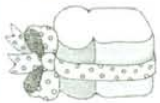
오려 낸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
니파이서 32:3

테이프를 붙인다

사랑하는 사람이 몹시 아프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야고보서 5:15

학교로 가는 길에 어린 아이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



마태복음 2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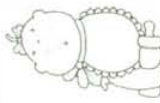
당지가 큰 아이들이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며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불려낸다.



마태복음 5:10

테이프를 붙인다

어린 동생들에게 고품을 지르고 싶다.



잠언 21:23

영신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교리와 성약 121:45-46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영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교리와 성약 130:22



여러분은 아주 오래 전에 친구에게서 장난감을 빌렸으나 아직 되돌려 주지 않았다.

모사이아서 4:28



어린 동생이 여러분의 책상 서랍에서 돈을 조금 가져 갔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한다.

니파이삼서 13:14



여러분은 사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군가를 보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9:7



부모님이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하신다.

골로새서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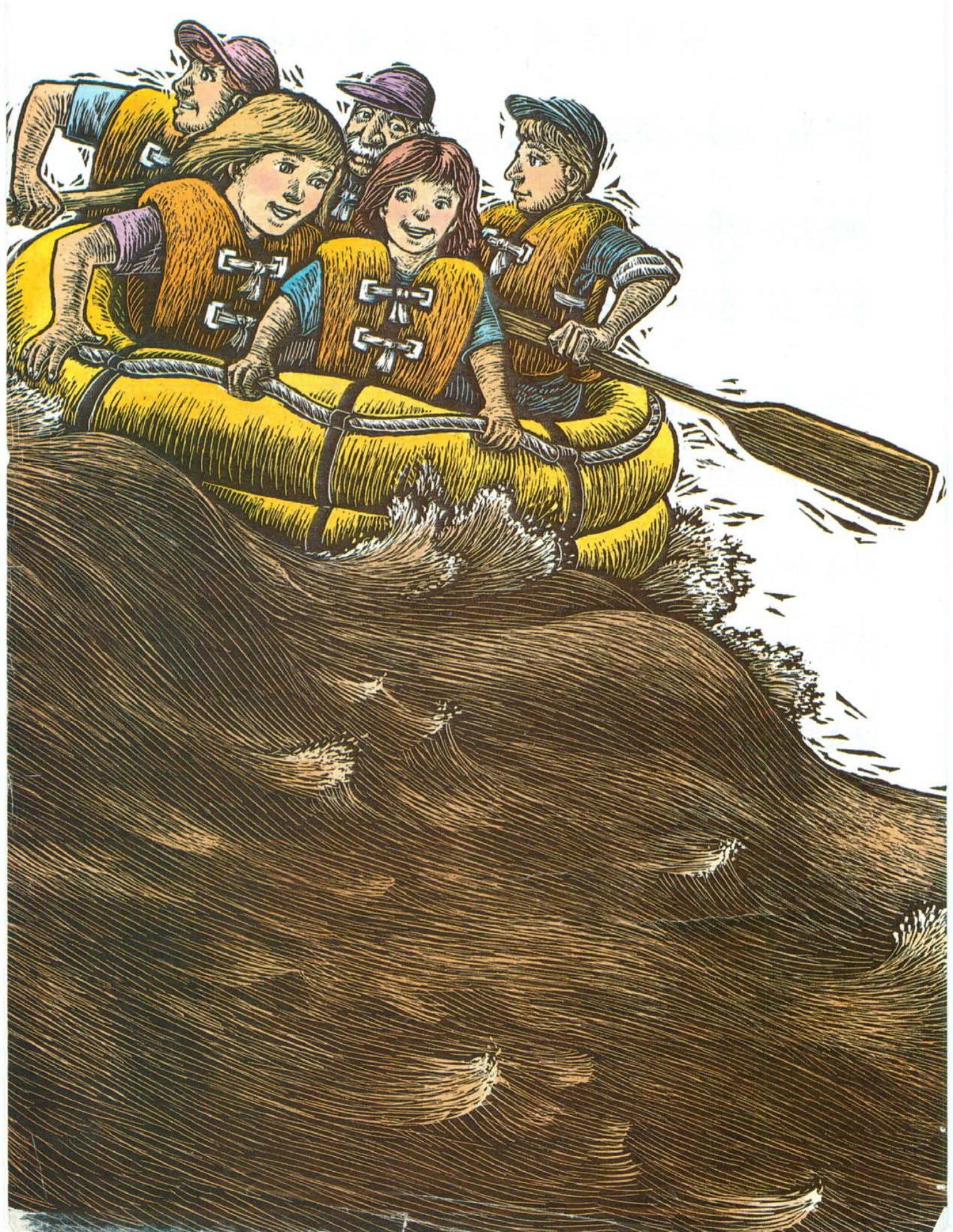
간중 밑줄을 하고 싶는데, 겁이 난다.

다모데후서 1:7-8



물론 영이 잠깐 책임지 않고 있다.

모로나이서 10:4-5



중에는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여러 분 있었다.

플로렌스는 간호사 복장을 좋아했기 때문에 간호사 일에 다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동생들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대한 선천적인 관심을 발전시켰다. 플로렌스의 아버지는 그녀를 중등 학교에 보내기 위해 고리 대금업자에게서 돈을 빌렸으며, 그 빚은 후에 그녀가 갚았다. 그러나 그녀는 대학교나 교원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로 간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열여섯 살에 간호사로서의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집에서 여섯 시간 떨어진 곳으로 여행했다.

플로렌스는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훈련을 마치고 졸업하던 해에, 그 해 최고의 간호사에게 주는 상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상을 받았다. 그녀는 공부를 계속했으며 5년 후인 1970년에는 조산원으로서의 훈련을 끝마쳤다.

지금 추쿠라 자매는 자신이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교회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문맹 상태를 벗어나라고 힘껏 격려한다. "저는 그들에게 그들이 아프리카의 미래라고 말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되 독창력과 상상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격려한다.

구세주께 맞을 내린 가족

어린 플로렌스에게 있어 교육에 대한 열망보다 더 한층 강했던 것은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고 싶은 소망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가장 큰 바램"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가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이웃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은퇴한 성공회 목사로서 이웃을 돌며 어린이들에게 착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성 니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했다.

플로렌스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장 큰 바램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고향인 나이지리아의 오닛샤로 돌아와서 간호사 일을 하였다. 이웃의 한 여인은 플로렌스가 직장을 마친 후 남자들과 놀러 다니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플로렌스는 노련한 간호사와 조산원이 된 후 크리스토퍼 추쿠라를 만났다. 그들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찾았다.

여인은 자기 조카를 플로렌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크리스토퍼 추쿠라는 플로렌스를 만나자 곧바로 아내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숙모의 추천을 근거로 플로렌스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플로렌스는 그의 구혼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추쿠라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늘 주님께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항상 제게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녀는 자기를 돌봐 주고 술을 마시지 않을 훌륭한 남편을 얻기 위해 꾸준히 기도해 왔다. "저는 참으로 구세주께 맞을 내린 가족을 원했어요"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크리스토퍼에 대해 기도했을 때 그녀는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따뜻한 느낌을 느꼈다. 두 주 후에 그가 그녀의 답을 알기 위해 왔을 때 그녀는 그의 결혼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1972년 3월 3일에 결혼했다.

플로렌스는 자신이 느꼈던 것처럼 크리스토퍼 추쿠라가 그녀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에 굶주려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함께 정규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많은 교회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크리스토퍼는 플로렌스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정치학과 정보학에서 학사 학위를 갖고 있었다. 그들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이지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갔다. 크리스토퍼는 일리노이 주립 대학교에서 교육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플로렌스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시간제로 여러 병원에서 일했다.

1977년에 나이지리아로 돌아올 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았다. 1981년에 그들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데 지쳐 있었다.

여러 해 동안 추쿠라 가족은 매년 말일에 가족끼리 특별한 금식을 하는 전통을 지켜 왔다. 1981년 12월 31일, 새해 전야에 그들은 일생 동안 머물 수 있는 교회를 찾도록 인도 해주기를 구하며 금식했다.

그 때로부터 꼭 9일 후 플로렌스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크리스토퍼는 대학 강의를 준비하던 중이었던



남편도 멀리 가 있었고 다른 신권 소유자도 찾을 수 없자 플로렌스는 병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위쪽: 플로렌스와 크리스토퍼 추쿠라

데 그들은 둘 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한 친구 집을 방문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나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소. 지금 당장 가보는 게 어떻겠소?’라고 말했지요.”

그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가 보다 일반적인 맥주 대신 청량 음료를 내오자 그들 부부는 놀랐다. 그 친구는 자기 부부가 지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쿠라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남편과 저는 서로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서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눈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서로의 눈을 들여다본 후 곧장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교회에 가입할 수 있지?’라고 물었어요.”

추쿠라 가족은 선교사 토론을 거친 후 1982년 2월에 침례를 받았다.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요.”

교회에 들어온 지 십년 후, 크리스토퍼 추쿠라는 가나 아크라 선교부를 관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추쿠라 부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부부 인봉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그들의 장남 에메카도 그들과 함께 인봉될 수 있었다.

추쿠라 가족은 다른 두 명의 자녀들도 함께 인봉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차남인 우케나는 고등학교와 세미나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지부의 음악 책임자 겸 오르간 반주자로 활동하면서 의학 공부를 희망하고 있다. 열 살인 막내 아들의 이름은 오루에부베로서 그 뜻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는 우수한 학생이며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또 추쿠라 부부에게는 두 명의 양녀도 있다.

추쿠라 부부는 교회의 부름과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관해 영의 속삭임을 따르는 것을 배워 왔다. 한 번은 선교부장이었던 남편이 시에라 레온으로 여행할 때, 우케나가 몹시 아파서 추쿠라 자매는 그와 함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다. 아홉 살인 우케나를 위해 처방된 약이 있었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는 계속 토했기 때문에 마침내 의식을 잃을 만큼 힘이 빠져 버렸다. 우케나의 맥박을 재본 플로렌스는 맥박이 매우 약해져 있음을 발견하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추쿠라 자매는 그녀의 아들을 축복해 줄 신권 소유자를 불러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도움을 간구하면서 그를 붙잡고 있었다. 기도하는 동안 그녀는 아들에게 먹이는 약물 중 한 가지를 주지 말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이 때가 오후 5시 45분으로서 그녀는 6시에 우케나에게 약을 먹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안도감을 느끼면서 무릎을 펴고 일어났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그녀는 아들에게 주는 약의 내용물을 바꿨다. 그 즉시 우케나의 맥박은 정상이 되었고 구토도 멈췄다.

추쿠라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없어서 무척 아쉬웠어요. 그가 있었다면 아들에게 신권 축복을 해주었을 거예요. 제겐 주님의 도움 말고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을 행사하여 주님께 간구했고 주님은 우케나를 구해 주셨어요.”

플로렌스 추쿠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기적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저는 한 번도 음식을 구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자립할 수 있었죠. 집에서 위생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성공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또 저는 신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봉사 가운데서 자녀들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남편을 얻었어요.”

플로렌스 추쿠라의 인생은 불확실한 생활에서 평화와 기쁨을 바라는 생활로 변화되어 왔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분은 제가 밝고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분은 저의 노력에 대해 제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어요. 저는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요.” □



장애물과 신앙과 기적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오랜 세월을 걸쳐 처음으로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며 또 그것과 관련된 불안전하다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죽은 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위하여 승영의 의식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이 혼자 애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때때로 극적인 방법으로 길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 해 전에 로이터 통신에는 어느 미국인이 잃어버린 지 오래되는 영국의 친척들을 찾기 위해 런던행 항공 우편을 이용함으로써 목적을 이루었던 기사가 실렸습니다. 몬태나 주의 마이클 시에 사는 25세의 마이크 아치테일은 조부인 라이오넬 아치테일이 19세기 말에 북아일랜드에서 미합중국으로 이주해 왔다는 사실밖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아치테일은 자신이 런던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주소인 영국 관광국으로 편지를 보내 자신의 친척들을 찾으려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공공 관계 공무원인 길버트 아치테일이라는 사람에게 의해 개봉되었습니다.

길버트 아치테일은 얼마 동안 조사를 한 후, 마이크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사촌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칸디나비아계 조상을 둔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을 따르는 전통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스칸디나비아계 사람이 아닌 분들을 위하여 저희 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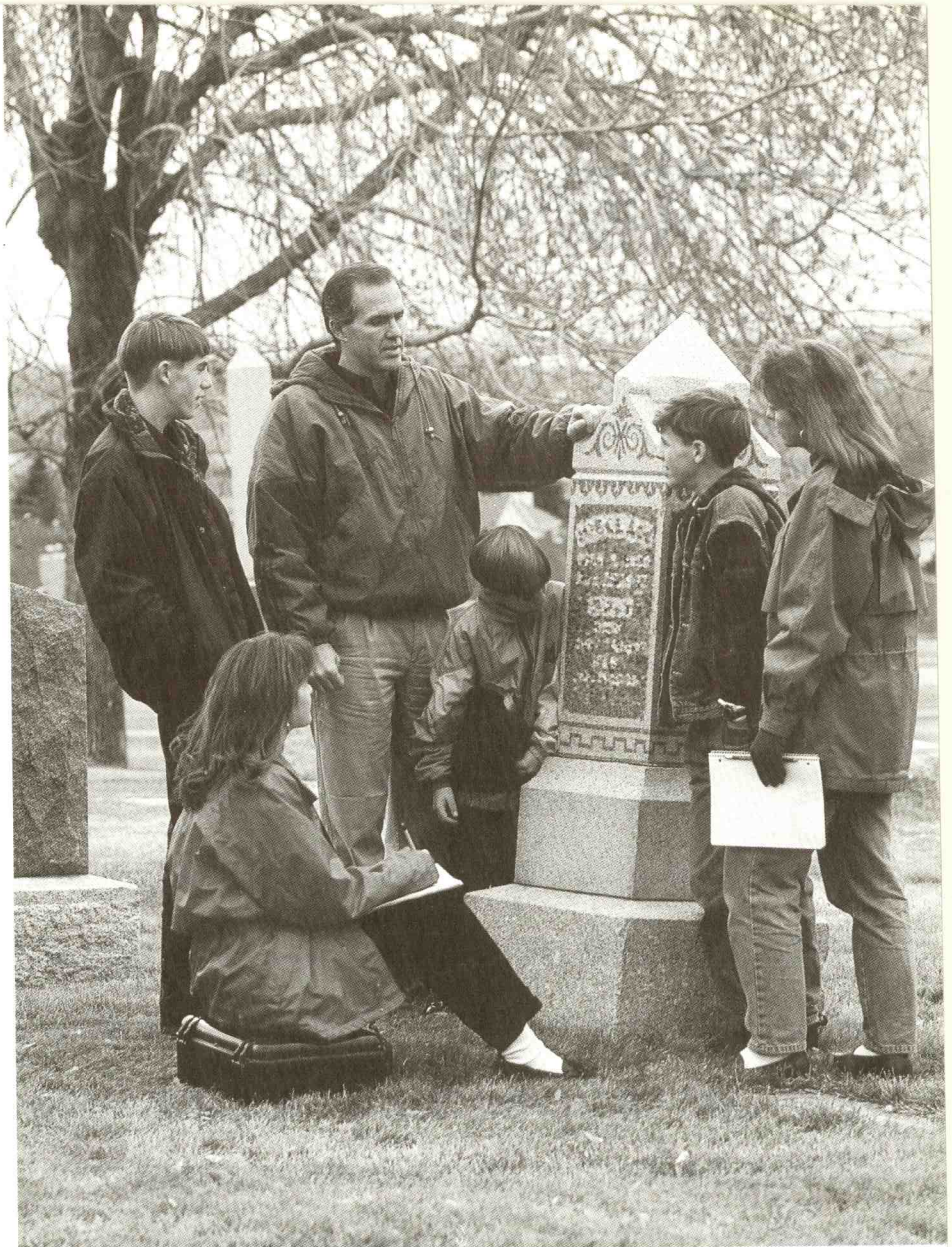
다. 제 조부의 성함은 닐스 몬슨입니다. 그분의 부친 성함은 몬슨과 전혀 다른 몬스 오케슨입니다. 그 분의 부친은 오케 페더슨이며 또 그 위는 페터 몬슨이고 그 위는 다시 몬슨이며 또 그 위는 몬스 루스틱으로서, 이 이름은 페더슨가와 존슨가와 몬슨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한 스웨덴식 군대 이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 작명 과정을 이해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권 계보 위원회가 발족되었을 때,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에서 선교 사업이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현세에서 영원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이제 그것을 듣고 있다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에게 계시된 이러한 진리는 이미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되었으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로 가버린 자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이람 스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리감 영도, 예언자 요셉의 지도하에 이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성실한 사도들도 그렇습니다.”(복음 교리, 420쪽)

그리고 1916년에 스미스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대신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그들에게서 속박의 사슬이 풀리고, 그들을 둘러싼 어둠이 걷혀서 저들 위에 빛이 비추어져, 영의 세계에 있는 그들이 이곳에서 자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사업에 관해 듣고 여러분이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48쪽)

저는 의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게 있어 의무란 신성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던 해리 에머슨 포즈딕의 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목적을 갖고 헌신할 때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인간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애국자로서 깃발을 따르며 싸우기보다 징집병으로서 싸웁니다. 의무란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더하려는 사람이 수행하기 전에는 결코 가치 있게 행해질 수 없습니다.”(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27쪽) 가족 역사 사업에 바쳐지는 그러한 헌신은 의무에 대한 이 정의를 충족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헌신적입니다.

가족 역사를 찾는 데 일시적인 장애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기적적인 방법으로 거친 들판 사이에서 확실한 좁은 길이 우리 앞에



가족 역사 탐구를 하는 데 나타나는 일시적인 장애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매우 기적적인 방법으로 분명한 길이 혼란의 장을 뚫고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나타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주의 유바시에 사는 엘리스 이 스미스는 증조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면서 신앙을 고무시키는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해마다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 사는 딸을 방문하는 그들 부부는 그때도 그 딸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스미스 자매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멈추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증조모의 죽음에 대해 어떤 기록

이라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무덤에 잠깐 들를 수 있는지 남편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선뜻 응낙하여 콜럼비아 강변의 작은 도시로 들어서자 그녀는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느낌에 따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세 개의 공동 묘지로 가서 보다 오래되어 보이는 곳 앞에 차를 세우고 증조모의 무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십 분이 채 못되어 막내딸이 “여기 베일리가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외쳤습니다.

스미스 자매의 남편은 차에서 물 한 깡통과 걸레를 가지고 와 비석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이끼를 벗겨 내었습니다. 이름과 날짜와 비문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비문에는 바로 이런 글이 써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나의 마음이 있도다. 그것을 취하여 인봉해다오. 저 위 주님의 궁전에 가도록 인봉해다오. 독실한 감리교도였던 조상이 오늘날의 그 가족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로 그들을 이끌어 갔던 것은 분명히 하늘의 도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복의 근원"(구 찬송가, 74장)이라는 오래된 찬송가에서 그런 비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의 거룩한 메시지는 대가족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울릴 것입니다. 뽀소서라는 단어는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업이 결코 현세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똑같이 행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말고 그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 거룩한 사업에 우리가 바치는 공헌이 작고 하찮게 여겨진다면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교리와 성약 18:10)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 간

증을 갖게 될 때 그것의 발전과 축진을 위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바치고 싶어하는 것이 이상하겠습니까? 장애물들은 아침 해 앞의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으로 우리 일을 수행한다면 바라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 본부를 둔 캐나다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할 때 헌신적으로 가족 역사 사업을 행했던 머틀 바넘이라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참으로 이 거룩한 사업에 충실했습니다. 그 분은 세인트 로렌스 강 지역에서 많은 자료를 모아 왔는데, 마침내 자신의 계보에 대해 더 이상의 자료를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연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몇 달씩이나 조사했어도 필요한 것을 찾아내지 못한 명백한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지치고 좌절감을 느꼈지만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중고품 가게 옆을 지나가다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반의 아래 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자신의 주의를 끄는 두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에 대해 주님께서 자기에게 영감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결코 달리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두 권의 책은 캔트 만에서의 개척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마치 소설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선반 위로 손을 뻗쳐 먼지투성이인 그 두 권의 책을 뽑아 냈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소설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들은 처음 기록된 때부터 캔트 만 근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계보를 적어 놓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각 페이지를 찾아보고 다시 자기 가족의 계보를 계속 추적해 올라 갈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한 장로 정원회는 그녀가 그 두 권의 책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로 보내졌으며 저는 이 책들이 장막 저편으로 가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계보를 추적해 올라가는 수단이 되었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관장단의 일원이었던 헨리 디 모일 부대관장님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계보와 연결되는 이 귀중한 수집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모일 부대관장님의 조부 중 한 분도 바로 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충실한 신앙을 가진 주님의 종이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중요하고 가치있는 가족 역사 사업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어떻게 하면 제 친구가 요셉 스미스의 시현을 받아들일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제 친구는 교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답

아담의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상의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 예언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시현은 주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들과 교통하시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분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일컬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되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민수기 12:6)

과거의 여러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회복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사실 주님께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제앙을 알고 있[으므로].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교리와 성약 1:17)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름없이 요셉 스미스 또한 예언자가 되기를 갈망하여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그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극적인 시현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시현은 바위투성인

산허리에서 불타고 있던 떨기나무를 기이히 여기며 자세히 바라보고 있을 때 찾아온 것입니다. 14세 된 어린 요셉의 시현은 그가 한적한 숲 속에서 어느 교회가 참된지 알기를 간구하던 중에 찾아 온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하늘은 열렸고, 요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린 요셉이 진리를 알기 위해 했던 것처럼 그 친구에게 경전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도록 권고하십시오. 말일의 예언자들께서 주신 권고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몰몬경에 대한 간증은 예언자로 신성한 부름을 받은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필리핀 디고스 스테이크의 산타 크루즈 텔 수르 와드 회원인 텍스터 도네이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요셉 스미스가 신성한 방문을 받았음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하나의 방법은 그들로 몰몬경을 읽게 하는 것임을 경험으로 압니다. 만약 그들이 모로니의 약속에 따라 자신이 읽은 것이 참된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그들은 이 경전에 대한 간

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몰몬경이 참됨을 믿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그것을 번역한 사람을 믿을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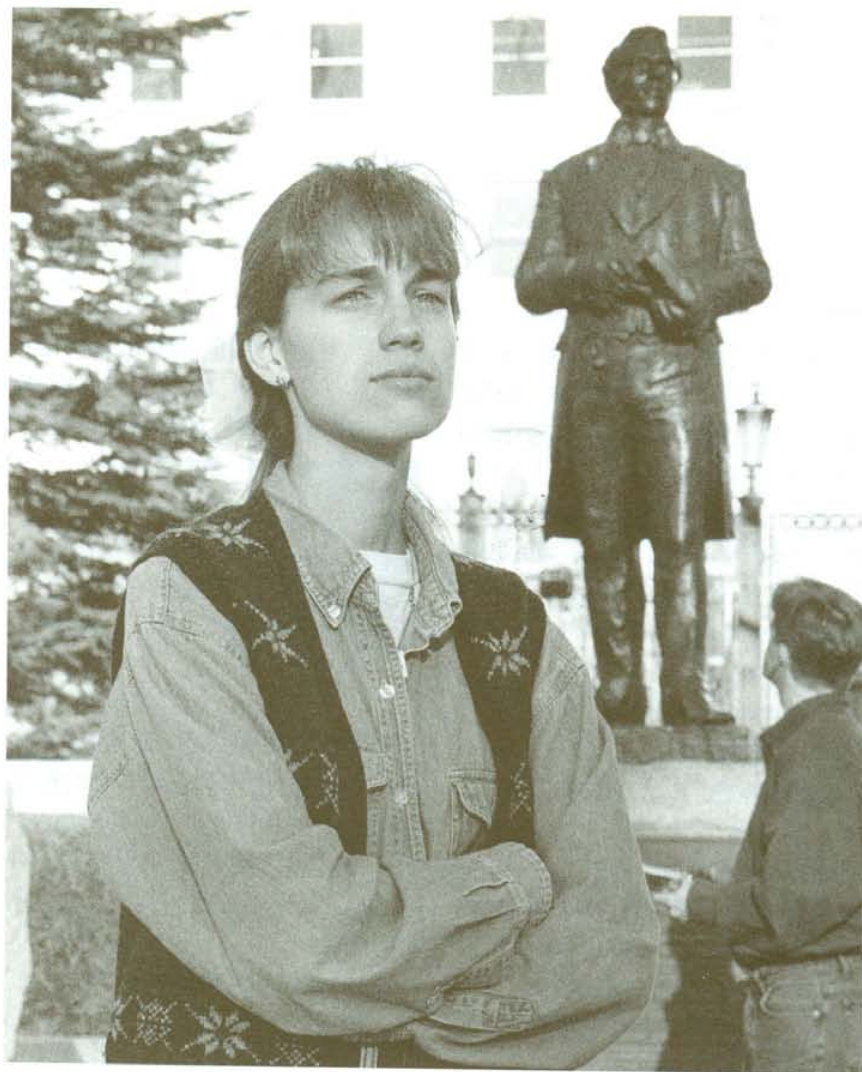
형제님의 친구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은 분명 없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셉 스미스가 하늘로부터 받은 시현의 결과로 이제 이 지상에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 시현은 그가 교회를 회복하는 과정에 받게 된 수많은 시현 중 첫번째 시현입니다. 회복의 열매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친구가 신앙을 갖고 기도하며 또한 형제님이 신앙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는 이 교회와 주님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를 받아들일게 될 것입니다.



그라시아 마리아
살바트리세
바테사도
카타니아 지부
이탈리아 카타니아
선교부

저도 형제님의 친구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교회와 교회에서 주는 것들이 저는 무척 좋았습니다. 저는 교리를 받아들였고, 그 교리가 참됨을 알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요셉 스미스는 과거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언급할 때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순종한



에 귀 기울인다. 부지런히 경전을 읽는다. 영의 증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

다니아 아끼꼬 다카하시, 15세
자나우바 지부

브라질 벨로 호리존테 선교부

값진 진주에 있는 요셉스미스 1~2서를 친구와 함께 읽어 보십시오. 읽으면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에게 형제님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저는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하던 중 의문들을 갖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셉스미스가 예언자요, 선지자요, 계시자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제라도 베라스
에오프레
오발레 남부 와드
칠레 오발레
스테인크

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해력을 축복해 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을 읽었을 때, 많은 편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만약 각 편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조언, 명령 등을 담고 있다면 그분이 요셉 스미스와 빈번히 접촉을 하셨어야 함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물문경을 두 번째로 읽던 중에, 애굽의 요셉이 “나의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저의 부친의 이름과 같을” (니파이이서 3:15)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음을 증거하는 리하이의 말씀에 무척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수천 년 전 애굽

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지냈던 이름, 또한 그의 부친이 지냈던 이름을 따라 요셉이라 이름지어졌습니다.

그 후 예언자 요셉의 순교에 대해 읽으면서, 또다시 저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하늘 중에 사시는 우리 아버지와 구세주를 뵈기에 합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이 말일에 예언자로 선택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이셨으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는 굳건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친구도 제가 행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해보시길 당부합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회원들의 간증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형제님의 친구가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요셉 스미스가 받았던 첫번째 시현과 다른 시현들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쩌면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음을 그 친구는 내심으론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말일에 우리가 참된 교회를 가질 수 있는 건 요셉이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개인적인 계시, 즉 이 교회는 참되며 요셉은 주님의 예언자였다는 영의 증거를 얻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친구가 그러한 영의 증거를 얻었을 때, 형제님은 그 친구가 침례의 물 속에 잠기는 것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시오 로드리케스
산체스
애플리아시온 와드
멕시코 마레로
스테이크

친구와 함께 요셉 스미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친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형제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도록 간구하십시오. 마음으로 원하던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찾으면, 친구에게 형제님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도 진심에서 우러난 기도를 통해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 주십시오.

스테파니 프릿츠
도르트문트 와드
독일 도르트문트 스테이크

저는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님의 친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요셉 스미스의 시현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신앙과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급도 의심하지 말라."(야고보서 1:5-6) 라는 경전의 조언을 마침내 실행으로 옮겼을 때, 저는 제 신앙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경전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어린 요셉 스미스는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였으며 그의 기도는 영광스런 시현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현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임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의로운 목적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호세 다 실 바 마토스
레카 다 팔마라 지부
포르투갈 마토신호스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이 문제에 여러 번 봉착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생각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된 책임 물문경을 거짓 예언자에게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형제님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다니 비바 장로
푸에르토리코 산
후안 선교부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르시사 옛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 자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하시며 이로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느니라. 아멘."(교리와 성약 20:11~12)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 앞에 진실로 나타나

셨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그에 의해, 그를 통해서만 이 말의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소에 칼라고스
이아도스
칼로칸 제3지부
필리핀 칼로칸
스테이크

교회의 가르침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요셉을 통해 계시된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예언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겪었던 다른 모든 시현들도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이 장로

아이보리코스트 아비드잔 선교부

독자 여러분이 아래 질의를 응답하는 데 참여한다면 질의 응답란은 한층 유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1996년 8월 1일 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응답과 함께 여러분의 성명, 나이, 거주 도시, 와드와 스테이크(지부와 지방부)명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각자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해서 적거나 타자를 쳐서 보내셔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동봉해 주십시오. 사진은 되돌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질문 :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할 만큼은 하는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님

“너희가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 몸¹에 지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엘마서 5:19)

엘 마서 5장에서, 엘마는 그 당시 교
회 회원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 났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
껴 보았느냐?”(14절) “너희는 너희를 창
조하신 이의 속죄를 믿으며 생활하
느냐?”(15절) “너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너
희 몸에 지니 보았느냐?”(19절)

이 질문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스스로
에게 던져 보아야 할 훌륭한 질문들이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함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 그분의
모습을 몸에 지니는 과정은 예수 그리
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다. 신앙은
우리가 회개하여 복음의 의식을 통해
구세주와 성약을 맺도록 동기를 부여한
다. 그런 연후에,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
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
하게 해주고 변화시켜 주는 성령이 우
리와 함께 하도록 축복해 주신다.

교회에 속한 많은 회원들이 이 놀라
운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엘
마가 물었던 이러한 질문에 진실되며
겸손하게 예라고 응답할 수 있다. 또한
아직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수 불가결
한 결심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
다. 한편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변화를
경험하였으면서도, 때로 자기들이 주님
의 사랑을 정말로 그들의 삶에 나타내
고 있다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을 느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건,
홀로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우리의 하
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통찰력을 기르며 개인적인 성장
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거울을 들여
다보듯이, 우리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자신의 면모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때
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 자신의 모
습에 투영되어 나타남을 발견하기도
한다. 최근에 한 자매님이 자신의 개인
적인 경험을 들려준 적이 있다.

“어느 날 저녁, 제 삶에서 일어난 몇
몇 심각한 어려움으로 인해 열렬한 기
도를 드리는 중,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
푸신 사랑의 온기가 제 몸에 충만하게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눈물
을 흘려내기 위해 일어나면서 저는 힐
끗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비록 잠
깐 동안이었지만, 영의 손길이 미쳐 제
마음 뿐만 아니라 신체적 용모 또한 정
결하게 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수초간의
짧은 순간에 비록 영의 손길이 남긴 눈
에 보이는 특징들은 사라졌지만, 오랫동안
제 마음에는 그 완전 무결한 사랑의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
해 나는 영과 함께 동반하기에 보다 합
당하게 되기를 더욱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그
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²
(에베소서 4:13)에 자신을 재어보라는
권고를 받는다. 이 자매가 행한 것처럼
기도와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렇
게 할 수 있다. 경전 공부와 성찬을 취
하는 것 또한 성신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영의 영향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
게 된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노고
를 받아들여 주셨음을 확신케 해준다.
어느 경우이건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보다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둘 때에, 우리는 엘마가 말한 그 놀라운 변
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습을
더 뚜렷하게 우리의 얼굴에 지닐 수 있다.

• 영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도록 초
청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 우리의 몸에 주님의 모습을 지닌
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역자 주

1. “몸은 물론경 영어본에서는 countenance라는 말의 의
역인데 기분이나 태도 또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한 사람
의 얼굴이 갖는 전체적인 외관이나 용모라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하나님 모습을 ‘몸에 지니’는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얼굴에 새겨져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
참조성구: 창 4:5 사 3:9 니이 13:9 교성 110:3 모세 5:21

2. 에베소서 4장 13절의 ‘stature’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신장, 키, 혹은 체격으로 번역되어 있다.(민수기 13:32; 마
태복음 6:27; 누가복음 5:52 참조)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
라고 번역된 성경의 말은 다 자란 어른의 키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온전한 것대임을 의미한다.





육신을 위하지 않는 것은

해롤드 지 힐렘
칠십인 회장단

치과 의사 양성 교육 과정의 최종 2년 동안 저는 구강 앞 안면 외과의로 범세계적 권위자이신 전문의 한 분으로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분은 그렇듯 저명한 권위자가 되기까지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치의대 학위를 받은 후 그분은 치과 교정학, 구강 외과, 성형 외과, 병리학 등에서도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자자한 명성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흉하게 망가진 얼굴이나 입 등을 복원시키거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며 얼굴의 제 모습을 갖기 위해 찾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저명한 외과의를 모시고 주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주례 세미나는 치과 학생들이 환자의 특이 이상 질환을 고찰하고 수술 교정을 거쳐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게 만든 의료 관찰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치료에 앞서 선행되는 연구 수업에서는 임상 및 실험 결과가 제시되고 그러한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한 병인이나 병원체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병원체가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인류에게 알려 주신 해로운 물질 가운데 하나로 판명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여러 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한 물질에 관한 중요한 권고가 담긴 지식들을 의학계에서 미처 가르치지 훨씬 이전에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 알려 주셨다는 사실은 요셉 스미스를 주님의 회복의 예언자로 부르셨음을 제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중한 증거였습니다.

그러한 강의 시간 도중 눈을 감고 있으면 제가 교회의 어

느 한 모임에 앉아 지혜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에 부여되는 축복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 시간을 통해 이 저명한 외과 의사는 담배의 유해한 해악의 사례를 들어 담배를 열정적으로 비난하였고, 우리는 실제로 담배가 끼치는 무서운 해악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 담배를 피우는 것이 폐암의 주요 병인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구강 및 후두암의 주요 병인임을 다루어 발표된 건 별로 없었습니다. 치과 학생이던 저는 그 관찰실에서 안면과 구강에 끼치는 암의 지독한 해악을 목격했는데, 그것은 피우는 담배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씹는 담배에도 기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강 조직에 강력한 자극제로 접촉시키면 대부분 외관을 훼손시키는 안면 종양으로 발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담배는 몸이나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니, 사람에게 좋지 아니한 것이요”(교리와 성약 89:8)

그 강의에서는 술 또한 구강과 후두의 연약한 조직을 자극하여 다른 종류의 종양을 일으키는 자극제로 성토되었습니다.

“거듭 이르노니, 독한 음료는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요, 다만 몸을 씻기 위한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9:7)

몸에 미치는 위해로운 화학 작용 뿐만 아니라 온도라는 측면 때문에 차와 커피에 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음료를 흔히 아주 뜨겁게 마시는데, 이는 부지 불식간에 비등점에 가까운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음료의 해로움에 대해서도 관찰되었습니다.

“또 뜨거운 음료는 몸이나 위장에 좋은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89:9)



그렇지만 왜 이러한 물질들이 몸에 유해한 것일까요? 어쩌서 어떤 사람은 병드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고명한 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정상 조건하에선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만 어느 일정한 요인때문에 세포가 길잡을 수 없이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형된 세포는 외관을 손상시키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파괴적인 종양으로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그분이 T-인자(T-Factor)라고 명명한 촉발 요인에 세포가 반응하는 감수성 정도는 개인의 유전적 기질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민감하여 사소한 자극에도 변화를 유발시키는 기질을 지닌 사람들도 있는데 비해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극에

내성적인 기질을 지닌 듯합니다. 세포의 변형이 촉발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유전 기질의 정도가 어떤 사람들은 별 탈없이 오래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쉽게 병들고 빨리 죽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연약한 자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능력에도 감당해 낼 수 있는"(고리와 성약 89:3)이란 지혜의 말씀에 나온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아마도 우리는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해 물질에 대한 내성이 낮은 사람에게는 단 한번만으로도 원치 않는 위험한 세포 변형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건강의 율법인 지혜의 말씀을, 아직 그 원리들이 썩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나타내신 예언자의 말씀을 의

학계가 얼마만큼이나 실증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한 젊은 의학도로서 저는 이 걸출한 구강 앞 안면 외과의의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분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듯 보였고 그 분의 기량에 탄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의 지식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장님을 보게 하신 위대하신 의사인 주님의 지식과 비교한다면 한낱 미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그분에게서 왔으며, 의학계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떴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의 건강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금지된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 주는 증거들이 나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론은 진리의 일부이나마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운동 기구와 헬스 클럽에 수억의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언제나 그가 잃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마련한 마약, 부도덕, 춘화, 가족 유대의 약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건하며 영감 받은 저희 부친께서 가르치셨던 현명한 권고를 저는 늘 감사할 것입니다. “네가 언제든지 첫번째 유혹에 ‘안돼’라고 한다면 두 번째 유혹에 ‘안돼’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아도 된다.” 첫번째 유혹에 ‘안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면,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선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마음에 화평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교리와 성약 89편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나 지혜의 말씀을 비롯한 경전의 말씀에는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강에 유익한 많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있어 ‘해야 할 것’을 다른 부분의 권고를 순종하기에 보다 힘쓴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권고를 순종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존 에이 윌소, 대회 보고, 1926년 4월, 110쪽)

‘해야 할 것’을 합시다.

운동: 영적인 복리는 더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은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합니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육체 운동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걸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충만될 수 있습니다.”(엔사인, 1974년 11월호, 66쪽)

수면: 89편에서는 매일 밤 우리가 얼마만큼 자야 적당한 지에 관한 가르침이 없지만 몇 쪽을 거슬러 올라가면 교리와 성약 88편 1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잠자기를 그치라. 네 침상에 일찍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나 너희 육체와 정신을 활기 있게 하라”.

여러분의 육신은 충분한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여러분이 온종일 잠자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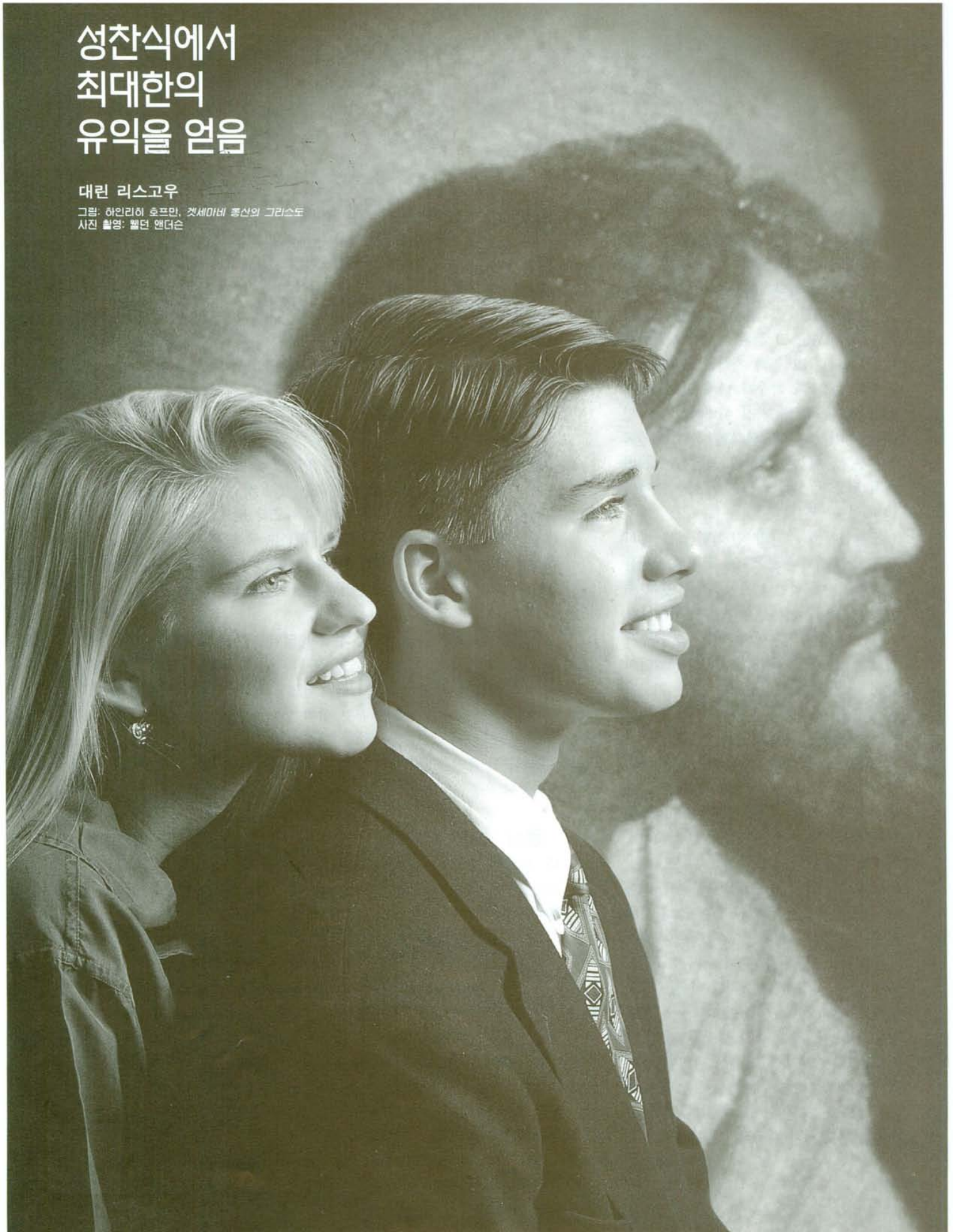
음식: 올바른 식생활은 여러분의 육신을 돌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경전에서는 모든 곡물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9:14 참고) 또한 육류는 “인간이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이나 “조금씩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9:12)

참으로 관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는 신중하게 그러한 영감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 계명에 따른 축복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적실 것입니다. 한 어린 치과 의학도였던 제가 발견했던 것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또한 결국엔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이러한 진리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충실한 신앙인은 이 진리들이 약속한 축복들을 기쁘게 누릴 것입니다. □

성찬식에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음

대린 리스고우

그림: 하인리히 슌프만, 쟈세미네 종산의 그리스도
사진 촬영: 윌던 앤더슨



때로 성찬식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얻지 못했다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성찬식에 있지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고자 하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올바르게 시작하십시오

교회의 문을 들어서기 전에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 일요일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계획하십시오. 안식일에 맞는 영적인 품격을 갖추십시오.

- 토요일 밤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모임 도중 꾸벅꾸벅 졸게 된다면, 결코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 허둥대며 조금하게 서두르지 않도록 일찍 일어나십시오. 집회소에 정시보다 조금 빠르게 도착하여 좋은 자리를 잡아 처음부터 예배를 기쁘게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경건한 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장을 입는 것은 여러분이 성찬을 집행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 경건하게 예배실에 들어가십시오. 예배실에서 친구를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더라도 결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 주의를 기울여 연사가 전달하는 바를 이해하고 영을 느끼며 배운 바를 기억하여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도록 간구하십시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잘 갖추어져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곁에 치워 두십시오. 무의미한 낙서를 하거나 소지품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하지 마십시오.

- 주제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헛 생각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나 또 다른 소음에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야만 할 상황이 아니라면 사소한 소란은 무시하십시오.

- 성찬에 대한 경건한 마음가짐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취함은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빵과 물이 전달될 때,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명상하십시오.

- 연사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 보십시오.

- 전형적인 "지겨워하는" 자세(팔꿈치를 무릎 위에 얹고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거나 앞 좌석에 머리를 얹고 숙인 자세)를 피하십시오. 그러한 태도는 연사의 주의를 흐트려 놓는 자세이며 배우기보다는 즐기에 더 좋은 자세입니다.

- 연사의 말씀을 들을 때, 성신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지 분별하려 노력하십시오. 귀를 열고 온 마음으로 들

으십시오. 여러분이 갖게 되는 느낌과 인상에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살펴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교회 모임 공책이나 일지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도 좋습니다. 기록을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는지 훨씬 더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 금식 간증 모임에서나, 혹은 연사가 자신의 간증을 나눌 때,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생각해 보며 어떻게 그 간증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시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몇 분이 지났나 하고 시간을 헤아리는 것은 그 모임을 더욱 지루하게 느끼게 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은 연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 집으로 돌아갈 때 배운 바를 함께 가지고 가십시오. 성찬식에서 전달된 메시지는 단지 일요일만을 위해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주중에도 기록한 바를 읽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통해 매일 새롭게 하십시오.

성찬에 관련된 성구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하거나, 혹은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 성구들을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26:26~29

요한복음 6:48~58

고린도전서 11:23~29

니파이삼서 18:1~7

모로나이서 4:5

모로나이서 6:5~6

교리와 성약 27:2 □

정반대의 결과

나의 간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차창에 꽂혀 있는 몰몬 비판 전단을 보았다.

스테파니 래드포드

어느 때와 같이 새벽 4시 반에 자명종 시계가 울렸다. 나는 늘 그렇듯이 손을 내밀어 시계의 스위치를 껐다. 어둠 속에 일어나 앉아서 나는 왜 매일 새벽마다 이래야 하는가 하고 투덜대었다. 새벽에 세미나라라니, 얼마나 바보짓인지 모를 일이라고 투덜거리면서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다. 오빠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우리는 5분 늦게 도착했다. 나는 선생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뒷줄에 앉았다. 최근에 나의 간증은 흔들리고 있었다. 제대로 되는 일도 없었고 성적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서 공과는 듣지 않고 과연 교회가 참된 것인가 하는 의심에 빠져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모습에 흠칫 놀랐다. 내 인생에서 배워 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만일 교회가 참되다면 그것을 알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공과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세미나라가 끝나자 나는 오빠와 함께 교실을 빠져 나왔다.

우리는 차에 올라타면서 차창에 전단이 한 장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처음에 그것이 광고지라고 생각했다. 펼

쳐 보니 그 안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고 써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 곳에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몰몬경의 성구들과 또 교회의 다른 자료 및 지도자들의 말씀에서 인용된 구절들이 열거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이 거리 아래쪽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갖다 둔 것임을 깨달았다.

오빠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곧바로 부모님께 드렸다. 부모님은 그것을 모두 읽으셨다. 우리는 그 내용 중 한 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다. 그런 후 부모님은 그것을 책상에 두셨고 우리는 학교로 갔다.

며칠 후 나는 그 전단을 가지고 인용문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전단은 틀린 것이었다. 그 인용문을 편집한 사람은 단지 부분적인 성구나 부분적인 말씀만 믿고 있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들만 실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중 한 분이 “경전을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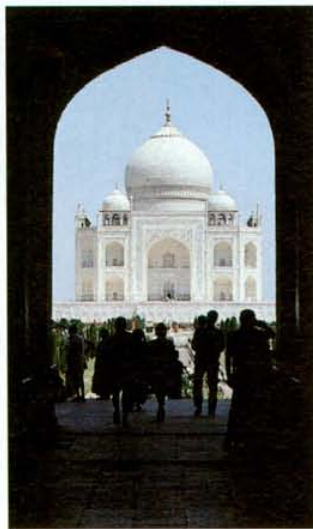
나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가 참된지 내가 몰몬경에서 읽었던 것들이 올바른 것인지 여쭙었다. 아멘이라고 한 후 잠시 동안 무릎을 꿇은 채로 귀를 기울였다. 나는 일어서면서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엄청난 느낌과 함께 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교회와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응답이었다.

나는 그 점에서 교회를 비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내가 배워 온 것들이 참된지 알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또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인도

파종의 시기



마이클 알 모리스

거의 10억에 이르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일에 직면해 있는 인도의 말일성도들은 회원 선교사가 되라는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좋은 의미에서 “방랑자 지부”라고 부른다. 대부분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 “방랑자”들은 인도에서 모임을 갖는 최초의 말일성도 그룹이었다. 잉글랜드에서 온 소수의 군인과 선원들 및 캘커타의 인도인 개종자 다수

로 이루어진 그 지부는 짧고 절망적인 선교 사업 시기였던 1851년에서 1856년까지, 그리고 1884년에서 1888년까지의 시기에 인도 전역에 조직된 여러 개의 지부 중 하나이다.

.....
위쪽: 17세기에 지어진 타지 마할은 인도의 과거에 대한 상징이다.

오른쪽: 방갈로리의 메리 웨일라와 플로렌스 마틸다 같은 말일성도들은 인도의 미래를 상징한다.





위쪽: 라자문드리의 어린이들
맨 왼쪽: 하이데라바드 제2지부의 회원들이 일요일 모임 (왼쪽) 을 마친 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그 기간 후에 인도에서의 선교 사업은 한동안 중단되었다. 언어와 문화로 말미암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선교부는 폐쇄되었고 선교사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몇몇 영국인 개종자들은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인도 회원들은 선교사들이 없는 가운데 계속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최초의 선교사들이 마주쳤던 그 문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인도는 다양성과 전통 및 동양 종교의 땅으로 남아 있다. 그 곳은 고대와 현대가 맞서는 땅이며, 가난이 부에 도전하는 땅이며, 다양한 전통과 계급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인도인들은 오래 전부터 지녀 온 믿음과 선조들의 관습에 따라 죽음을 명예롭게 여긴다. 어떤 종교적인 전통들은 회복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변화가 느리게 온다. 말일성도 교회로 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어떤 주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전통 때문에 복음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 교회의 교리

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개선시킬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도의 전통적인 믿음을 부정한다.

인도 방가로리 선교부의 쿨차란 싱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

“가장 소중한 느낌”

라스미 투라세에스와리 마다는 그녀를 교회로 인도해 준 선교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외심을 갖고 말한다. 투라세에는 그들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녀는 “이전에는 제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복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개종하기 전에는 투라세에도 수세기 동안 여성들을 베일로 가리고 격리시켜 왔던 정숙함에 뿌리를 둔 전통 아래에서 다른 많은 인도 여성들과 똑같이 살았다. 양부모 밑에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학대받으며 자랐던 투라세에는 자기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거의 없었다. 그녀는 복음을 알기 전의 자기 생활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울었어요.”라고 말한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투라세에의 힘든 생활에도 영적인 평화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침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구루로 알려진 힌두교의 저명한 교사였던 그녀의 부친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녀가 행복해 보이는 이유를 알고 싶어했다. 그녀가 그의 종교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수치심을 느끼고 그녀와 절연했다.

투라세에는 자신이 영원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승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라자문드리에서 지방부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바로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제가 얻었던 지식은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라고 말하는 투라세에의 이름은 힌두교 여신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개종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저는 선교 사업을 사랑하지만 라자문드리의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은 제게 무척 힘들어요.”

또한 그것은 투라세에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렵다. 여성들이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이상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인도 남성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남자 구도자들은 아내 없이는 승영할 수 없다는

가르침에 종종 놀란다. 영원한 결혼에 대한 교리는 교회에서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해주며 결혼 생활에 도움을 주어 왔는데 대부분의 결혼은 아직도 부모님이 정해 주는 결혼이다.

이제 투라세에의 얼굴과 밝은 옷차림은 그녀가 새롭게 발견한 낙천주의와 가치를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침례와 그 이후에 주어진 성신의 은사는 그녀에게 “이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성신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훌륭한 답을 주셨어요. 저는 봉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저는 저의 간증을 전해야 해요.”라고 말한다. □

라자문드리의 투라세에 마다(왼쪽)가 동료 지방부 선교사인 수차사 아나파르시와 선교사 토론을 복습하고 있다.



한다. “복음은 그런 믿음을 깨뜨림으로써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두 평등하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지식만이 그들에게 참으로 큰 자긍심을 심어 주어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단지 특정한 지위나 특정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나 있게 해주지 않습

하이데라바드 제1지부의 지부장인 다르샤남 사무엘 카라칸다와 그의 아내 아루나 데비는 교회 회원들이 기꺼이 복음을 나누기 때문에 지부가 발전한다고 말한다.



니다. 그들은 가난의 고리를 끊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들이 가능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를 가진 인도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993년에 선교부가 세워졌는데, 그때까지 약 500명이었던 교회 회원 수는 지난 2년 동안 두 배 이상이 되었다.

이전에 인도가 싱가포르 선교부에 속해 있을 때는 선교부의 지도자들이 지부를 자주 방문할 수 없었고 복음 선교사들은 소수였다. 교회의 발전은 더뎠고, 많은 회원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고투했으며 지역 지도자들은 낙담과 싸웠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교회로 들어왔던 말일성도 1세대들은 오늘날 교회의 발전을 기뻐하며 선교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사한다. 지금은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이 60명이며, 여러 쌍의 부부 선교사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24개의 주요 언어와 수많은 방언을 갖고 있는 9억 5천만의 국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에 압도되지 만, 인도의 젊고 강한 말일성도들은 자기 나라의 광대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에 열의를 갖고 있다. 그들은 회원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매우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인도 북부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옮겨간 후 교회로 개종한 질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인도에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9억 5천만의 인도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회원들은 자기 국민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회원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난 몇 달간 그 일은 아주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말일성도가 인구 백만 명 당 두 명도 채 안되는 나라에서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주님의 선언(교리와 성약 88:81



위쪽: 라자문드리의 읊 시릴 장로(왼쪽)가 선교사 토론을 마친 후 새로운 회원인 빅터 파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1993년에 문을 연, 인도 방갈로리 선교부의 랜달 듀엔 데이비스 장로와 파르사 비말 간디 장로
맨 오른쪽: 방갈로리 제1지부의 회원인 마이클 안소니와 그의 아내 크리스틴 및 그들의 자녀들



참조)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결과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굽이쳐 흐르는 인도의 갠지스 강처럼 간디의 나라 전역으로 뻗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회원 선교 사업의 결실

3년의 공백기를 기친 후 1993년 8월에 복음 선교사들이 라자문드리 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작은 지부가 고전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복음 선교사들과 충실한 회원들은 복음 교리를 강조하고 보조 조직을 조직하며 지도자 훈련 모임을 가지고, 세넨 집에서 회원들이 모여 모임을 갖도록 준비하면서 지부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일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침례 숫자가 늘어났다. 성찬식 참석자 수도 1993년 9월에는 36명이었는데 7개월 후에 지부를 나눌 때는 2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회원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그들이 가족과 친구를 잃기보다는 오히려 개종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로 말미암은 열의는 회원들이 더욱 선교 사업에 힘을 기울이게 하였고 지역에서 “한 사람이 한 구도자 찾기”라는 모토를 세우게 하였으며 지방부 복음 선교사의 부름이 주어지도록 이끌었다.

넓은 고다바리 강을 따라 인도 남동부에서 벵골만과 만나는 지점 근처에 위치해 있는 라자문드리 시는 그 곳의 높은 습도와 사우나 같은 무더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복음 선교사들 가운데서 “선교사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라자문드리 제2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복음 선교사. 욥 시릴은 “우리가 회원 선교 사업을 통해 이룬 수고의 결실에 모든 사람이 흥분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고향인 히데라바드 시에서 봉사하는 동안 1993년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인도에서의 교회의 더딘 출발이 극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1850년대의 첫 선교사들은 인도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젊고 교육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라자문드리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1993년에 고전을 겪고 있었던 그 지부는 지금 다시 한 번 지부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인도의 광대한 데칸 고원 중앙에 있는 라자문드리 시의 서부에 위치한 히데라바드에서는 지난 2년 동안에 교회로

지부 활동을 위해 모인 델리 제2지부의 모니카 마세이, 쉬바 다스, 로지 가네산, 아샤 다나파울

들어온 사람의 90퍼센트가 모두 회원의 친구이거나 친척이다. 한때 강력한 페르시아 왕들의 집이었던 히데라바드는 수백만 명이 사는 번화한 주요 도시로서 세 개의 교회 지부가 조직되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수니사와 산토쉬와 산야 무라라는 회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들 세 명의 형제 자매는 1980년대의 히데라바드의 유일한 말일성도 청소년들로서 사모아에서 침례 받았던 그들의 삼촌 부부인 엘지와 에드윈 다라마라 후를 통해 1978년에 교회를 알았다. 수니사와 산토쉬와 산야는 오랫동안 교회 봉사와 가르침을 통해 몸에 밴 학습 습관이 기도와 더불어 그들 모두가 인도의 경쟁률 높은 의과 대학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엄격한 입학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왔다고 말한다.

히데라바드의 의과 대학교에 다니는 수니사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빠인 산토쉬와 산야는 인도 남동부의 마드라스 근처에 있는 배타적인 기독교 의과 대학의 유일한

말일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산토쉬는 학생회장으로 선출될 만큼 인기를 얻게 되었다. 산야는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것은 설교하고 논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지금 인도는 젊은 세대의 더욱더 많은 수가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수니사와 산토쉬와 산야처럼 젊다. 지부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20대와 30대인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히데라바드 제2지부의 회원으로서 전기 기사인 27세의 라주 구티는 일요일이면 주일학교 회장단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바쁘다. 초등협회 회장인 그의 아내, 수압나는 지부의 어린이들에게 찬송가와 공과를 가르친다. 라주의 동생인 25세의 빅터도 석사 과정을 밟는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내어 지부장단의 부름을 수행한다. 대학생들이 22세의 여동생 헤마와 19세의 남동생 존도 청년 회장과 청년 회장으로 부름 받아 지부의 청소년들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이 다섯 명의 가족 회원은 모두 한 주에 얼마간의 시간을 내어 지방부 선교사로 봉사한다.

헤마와 존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바라는데 헤마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비회원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정해 주는 결혼을 위해 선교 사업을 연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헤마는 “매일같이 저는 주님께 부모님을 개종시켜 주셔서 제가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허락 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요. 선교 사업은 세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해야 해요.”라고 말한다.

헤마와 다른 많은 젊은 여성들은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부모가 정해 주는 결혼보다 인도에서 그들 식의 표현으로 “연애 결혼”으로 알려진 결혼을 택할 것이다. 한때는 금기였던 데이트가 인도의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연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젊은 말일성도 여성들은 언젠가 그들을 가장 가깝기는 하지만 수천 마일 떨어진 필리핀의 성전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신권 소유자와 결혼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회원들은 인도에 성전이 세워질 날

을 바라며 일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

교회 회원의 수가 너무 적고 도시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원끼리 결혼할 수 있는 독신 성인들은 소수이다. 그리고 비회원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계속 교회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도 선교부장은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말일성도 독신 성인들을 서로서로 소개시켜 주고 회원끼리의 결혼을 장려하게 되었다.

“몰몬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다.”

필리핀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세에마 존은 자신을 귀환한 선교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아직도 저는 제가 계속 선교사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세에마는 인도 북부에 있는 수도인 뉴델리 출신이다. 거의 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는 두 개의 작은 교회 지부가 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제 간증도 함께 가져가요.”

세에마는 필리핀의 마닐라 성전에서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대리 의식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 회원들을 활동화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해 왔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제가 가진 복음 지식에 감사해요. 내가 아는 것을 나눌 가족과 친구가 없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인도의 많은 귀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세에마도 선교 사업을 사랑하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개종되고 활동화되는 것을 기뻐한다.

인도 남부에 위치한 방갈로리에서는 지부의 지도자로 봉사하는 귀환 선교사들 덕분에 교회가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방갈로리 제1지부의 지부장인 마이클 안소니와 그의 두 보좌 및 집행 서기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얻은 부름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그들의 지부에서는 침례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성찬식 참석률이 거의 80퍼센트에 이른다.

방갈로리 제1지부의 회원인 안소니 지부장은 “현재 우리 지부에는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사람이 10명입니다. 회원들은 성전에 갈 만한 여유는 없지만 주님께 자신들이 충실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어합니다.”라고 말한다.

방갈로리 제2지부의 회원들은 활동이 저조한 가족들에게 사랑을 보여 줌으로써 거의 모두를 다시 교회로 데려왔다. 라자 도리스와미 지부장은 “자기 가족 모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싶었던 리하이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이 침례 받고 활동화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방갈로리에 있는 지부들은 교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른 교회들과 함께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2월에 연합 지부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에는 400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도리스와미 지부장은 “그들은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을 기대했지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물론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다.’라고 말하죠.”라고 말한다.

“열매를 맺음”

신성한 소들이 인도의 포장된 도로와 시골의 외진 길을 돌아다닌다. 이슬람 사원은 충실한 신도들을 기도하도록 부르고 힌두 사원으로부터는 한 줌의 향이 하늘로 올라간다. 붉은 티어번을 쓴 시크 교도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동안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예배당에 모여 찬송가를 부른다.

북부의 높이 솟은 히말라야 산맥과 서쪽 사막과 비옥한 동쪽 평원에서부터 남부의 데칸 고원과 녹색 해안 평지까지 인도에서는 매일마다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가 수행된다. 인도는 힌두교와 시크교와 불교와 자이나교의 발상지로서 많은 종교가 있는 나라이다. 인도인들의 약 83퍼센트는 힌두교도이며 그 외 11퍼센트는 이슬람교도이다. 인도인들이 기원 후 약 50년에 성 도마가 방문했다고 믿는 인도의 남부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기독교도들은 인구의 3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그 나름대로 특색을 지니고 발전하고 있다. 많은 인도인들이 개종에 대해 갖는 전통적인 태도를 고려해 보면 최근의 교회 회원 수의 증가는 놀랄 만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선교사들은 흔히 음식과 돈을 줌으로써 “라이스 크리스천”(rice christians)으로 알려진 개종자

들을 얻었다. 굶주림과 고통에 직면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나라에서는 오늘날도 “라이스 크리스천” 같은 마음가짐이 남아 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개종자들이 쌀을 얻으려고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봉사하고 베풀기 위해 교회로 개종하는 것을 알고는 놀란다.

인도 선교부의 선교부장단 제1보좌이자 인도의 교회 실무 책임자인 에브니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다. “영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증거해 주기 전까지는 구도자들이 ‘그 곳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죠?’라고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공식적으로 “단체”로 인정된 교회는 아직까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으며 결혼을 집행할 합법적인 권능도 없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신도들이 회복된 복음을 공부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교회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교회 자료와 경전이 인도의 주요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자료들이 힌두어, 탈루구어, 타밀어, 벵갈어로 완전히 번역되면 복음의 메시지는 전체 인구의 약 75퍼센트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1992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 인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자기 국민들에게로 나아가 일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말했을 때 회원들은 선교 사업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했다. 오늘날 그들은 선한 목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인도인들의 수가 증가되는 것을 기뻐한다.

히데라바드의 전 지부장인 바산스 라쉬 브라간사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거대한 한 가족과 같습니다. 인도는 우리 교회를 심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희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 마음에 심어 준 훌륭한 씨앗은 지금 자라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위쪽: 라자문드리의 이 소녀처럼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은
자부 모임이 열리는 집 앞에 모이고는 한다.

오른쪽: 16세기와 17세기에 지어진 하이데라바드 남쪽의
쿠틀 사히 묘지

맨오른쪽: 인도의 지역 사무실의 실무 책임자인 에브니즈
솔로몬과 그의 아내 사비타와 아들 케빈



“아름다운 계절”

1856년에 최초의 인도 선교부가 문을 닫았을 때 선교사였던 로버트 스켈튼은 자신이 사랑을 키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들을 떠난다. 그분의 신성한 속성인 완전함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¹

그로부터 약 150년 후인 지금 선교사들과 회원들이 직면하는 과제는 여전히 거대하다. 그러나 영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따를 길을 열어 주고 있는 충실한 회원들을 축복해 주고 계신다.

라자스탄의 사막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아름다운 계절이 왔어요. 우리 나라에 훌륭한 계절이 왔어요.”라고 노래하며 인도 북부에 우기가 도래했음을 선포한다. 인도의 말일성도들도 그와 똑같다.² 오늘날 인도의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첫번째 교회 회원들과는 달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

주

1. “인도에서 최초의 말일성도 장로들은 영국 군인과 선원들이었다.”, *처치 뉴스* 1959년 1월 3일, 12쪽
2. 라구비르 싱, “라자스탄의 야외극”, *내셔널 지오그래픽*, 1977년 2월호, 231쪽

예언자의 약속을 증명함

제임즈 알 프린스

1986년에, 예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물몬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책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7쪽 참조) 그 분의 약속에 고무되어, 저와 제 아내는 가족이 함께 물몬경을 읽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부에게는 6개월부터 6살 난 아이까지 모두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고작 한단 밖에 읽을 수 없었습니다.

531쪽과 그것의 2배에 해당하는 단을 가진 물몬경을 읽는 것은 마치 끝없이 계속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천천히 읽기는 하였으나, 어쩌면 그래서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빠짐없이 읽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기꺼이 도왔으며, 때로는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 물몬경 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빼먹지 않고 꾸준히 읽었는데도, 니파이이서를 완독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무렵 큰 아이 둘이 몇 개의 단어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부분이 들어 있는 니파이이서를 천천히 읽어감에 따라 영적인 면에서나 또는 다른 여러 면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성장하고 발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물몬경을 읽는 시간에 가족 예배의 시간까지 함께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아이도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럽혀진 기저귀와 배고픈 울음으로 인해 읽기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매일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상관없이 목표한 단을 읽기를 마쳤습니다.

첫아이가 11살이 되던 무렵부터, 우리는 하루에 한쪽꼴로 물몬경 읽기의 속도를 높여 갔습니다. 그 해의 반이 지날 무렵, 우리는 엘버타 성전이 그 다음 해 봄에 재헌납된다는 소

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가족이 고대해 왔던 바였습니다. 대략의 계산을 해본 결과 현재의 속도로 읽는다면 헌납하는 당일에 우리는 물몬경의 마지막 한 장을 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200km 떨어진 거리를 여행하여 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장을 읽기 위해 성전 부지로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헌납을 앞둔 그날의 새벽은 밝고 환했습니다. 성전 부지는 아름다웠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돌 기념비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을 끝으로 물몬경 읽기를 마쳤을 때, 우리와 함께 하는 영의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몬경을 완독하는 데 무려 5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번갈아 각자의 기도를 드리며 물몬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 나타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어떠한 천사를 본 것도, 또한 그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평온과 화평과 사랑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성신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영이 우리들 모두에게 물몬경이 진실되고 성스러움을 증거하심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우리는 물몬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들과 가까와질 수 있었던 기회를 감사했으며 그 분들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받았던 축복—신앙이 증진되는 축복, 역경을 이길수 있는 힘, 우리 가족간에 더욱 깊어진 사랑과 평안—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을 받았습니니다. □

역주: 한국어판 물몬경에서 전체 쪽수가 590이어서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테지만 여기서 나온 531쪽은 영어 판 물몬경의 쪽수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인가 거짓인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몰몬경의 저자, 즉 그 책의 신성한 기원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830년 3월 26일, 뉴욕 주 팔마이라 시에 있었던 옛날 이 비 그랜딘 출판사에서 그 책이 처음 인쇄된 이래로 항상 많이 이야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다음과 같이 힘찬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몰몬경은 [우리들의] 간증에 대한 종석입니다. 종석을 떼어 내면, 아아치가 무너지듯이, 교회의 모든 것은 몰몬경의 진실성과 더불어 서게 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적대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몰몬경을 논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더불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권의 열쇠와 계시와 회복된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몰몬경이 참되다면—이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것이 참되다는 영의 증거를 받았음을 간증했습니다.—인간은 회복과 그에 수반되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우리 간증의 종석이며, 우리 교리의 종석이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의 증인에 대한 종석입니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5쪽)

교회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몰몬경의 참됨, 더 나아가서는 그것의 출현에 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기사의 진실성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토록 대답하고 주목할 만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을 듣는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

다. 세계는 그 말이 “단판 승부”를 제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경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하는 대로 참되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이 교회와 그 창시자는 꾸며낸 일이고 기만이며 허위이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게 흑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물론경의 확실성과 우리 믿음의 중석이 되는 그 책의 역할은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만난 후, 천사 모로나이로부터 반복하여 권고를 받고 마침내 고대의 금판을 넘겨 받아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그 판을 번역한 예언자이든가 그렇지 않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은 쪽이라면 벤슨 대관장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에 따라 그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영웅이나 선량한 젊은이 또는 탁월한 픽션 작가라는 평판조차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교사나 미국의 특별한 예언자 혹은 위대한 지혜 문학의 창시자로 간주될 자격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물론경의 출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는 분명히 앞서 말한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전에 시 에스 루이스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말했던 것과 똑같이 느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나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교사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해서는 안될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위대한 도덕 교사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신 이상자—그것은 그가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입니다—이거나 악마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 또는 그 이하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바보로 만들고 침을 뱉고 악마로 몰아 죽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류의 위대한 교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의도도

갖지 않으셨습니다.”(순수한 기독교, 뉴욕:더 맥밀란 컴퍼니, 1960년, 40~41쪽)

저는 우리가 시 에스 루이스의 말처럼 필사의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과 물론경의 신성을 담대하게 옹호하도록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성과 정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요셉 스미스를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물론경을 기적으로 계시된 주님의 말씀으로 받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와 그 책을 지옥의 파괴적인 속임수로 여기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 놀라운 상상력을 가졌다거나 문장을 만드는 기술이 놀라다고 하는 기묘한 중간 입장을 취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문학적이나 역사적으로나 또는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시 한번 순수하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물론경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교리와 성약 6:2)는 기록임을 간증 드립니다. 우리에게 물론경은 생명과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예리합니다. 우리 역사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메시지에서 그 어떤 것도 물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호한 선언보다 더 빨리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결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물론경으로 인해 얻은 요셉 스미스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을 갖고, 요셉 스미스는 천사와 얘기를 나눴으며 천사로부터 고대의 금판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마치 제가 천사 모로나이를 보았던 세 명의 목격자나 또는 금판을 직접 보고 만졌던 여덟 명의 목격자처럼 분명한 확신을 갖고 간증드립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말해 주고 제 영혼과 마음을 교회에 바치게 했던 것은 바로 물론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 가운데 저에게 소중한 종류의 책에 넣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적인 생활과 지적인 생활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며, 고전 중의 고전이며 성경을 재확증해 주고 티끌에서 나는 소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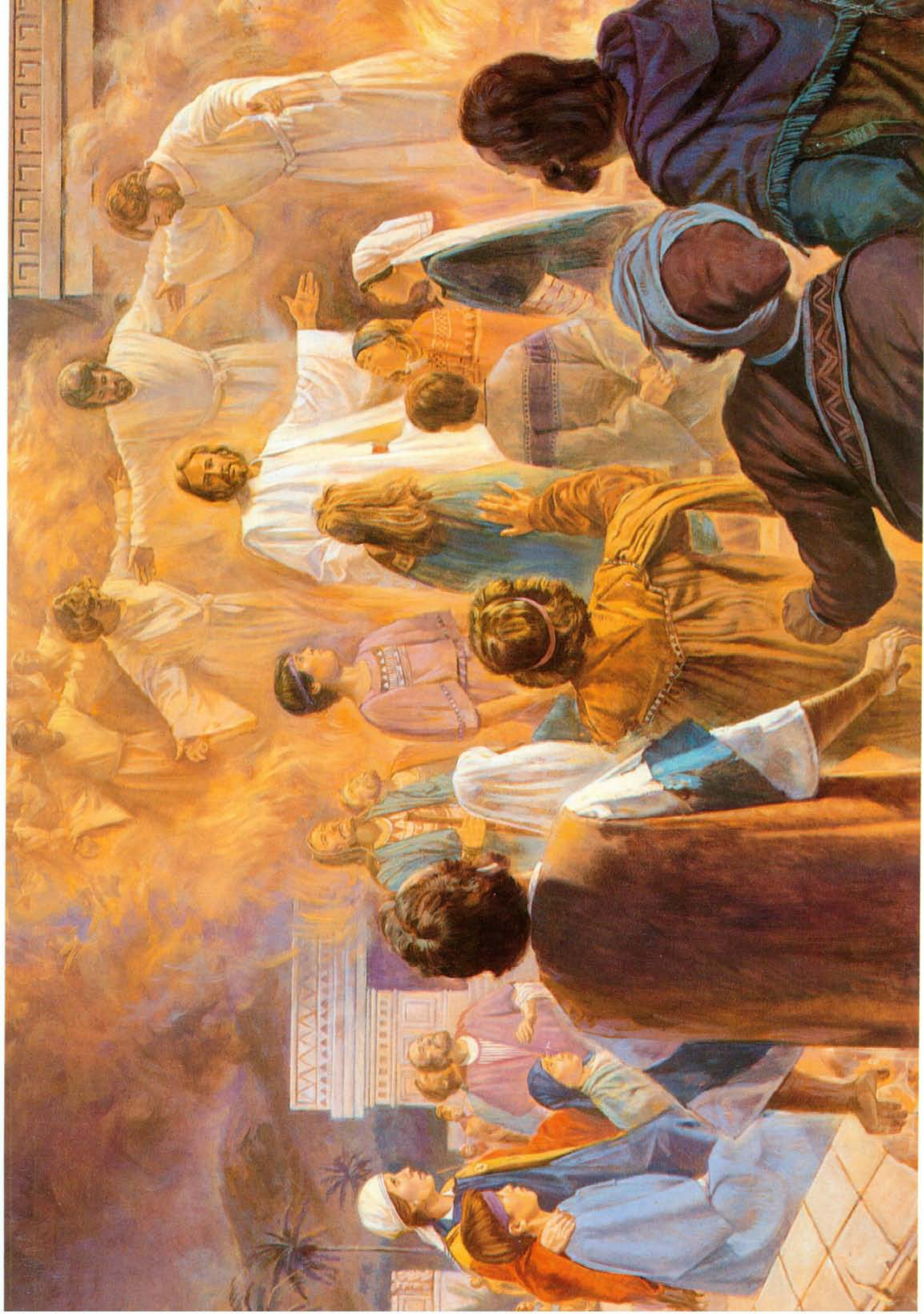


그림: 로버트 티 배렛,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니파이 백성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심

구세주께서는 니파이 백성의 도시인 바운티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후,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라고 이르셨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예워 싸고 "축복" 하는 모습을 보았다. (니파이삼서 17장 참조)



어떤 사람들은 9억 5천만이나 되는 이웃과 복음을 나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엄두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도의 말일성도들은 회원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매우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인도: 파종의 시기”, 34쪽 참조

